

2021학년도 09월 모의평가
나국어 모의평가 해설

나 국 어
모 의
해 평 가 설
나^국어

< 해설을 읽기 전에 >

꼭 다시 한 번 지문의 한 글자, 한 문장, 문단, 글 전체를
소중하게 분석하신 후에 해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지에 따라 수능 점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다시 풀고 분석 후에 해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뽕은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뽕은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 뽕은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그 텁텁한 느낌을 뽕은맛이라고 하는 거죠.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 덜 익은 감의 타닌은 침에 녹는 성질이 있어 뽕은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 가면서 타닌이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뽕은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뽕은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 있는 감과 녹차는 당뇨와 고혈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뽕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뽕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메모	발표 계획
① 청중은 뽕은맛의 느낌은 알지만 뽕은맛과 관련된 지식은 부족할 것임.	뽕은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② 청중은 기본적인 맛은 미각 세포를 통해 느낀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음.	기본적인 맛과 뽕은맛이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뽕은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③ 감의 타닌(과육의 검은 점)이 뽕은맛을 낸.	뽕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를 보여 줘야지.
④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지.
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음.	뽕은맛이 포함되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의 예를 언급해야지.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녹차에 타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녹차의 뽕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학생 2: 뽕은맛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쉽게 접하는 과일인 감과 연결해서 설명하니 뽕은맛에 관심이 생겼어. 뽕은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 봐야겠어.

학생 3: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뽕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감이 익어 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4~7]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시청하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산림 치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국립 산림 치유원의 산림 치유 지도사 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도사: 안녕하세요.

진행자: 시청자 분들께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도사: 산림 치유란 피톤치드, 나뭇잎의 초록색 등과 같은 숲의 환경 요소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산림욕, 숲 치료라고들 하시는데요, 공식 명칭은 산림 치유입니다. 산림 치유원과 치유의 숲에서는 숲 명상, 숲 체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숲 명상 사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시청자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숲의 짙은 녹음과 맑은 새 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진행자: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 나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체험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지도사: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습니다.

진행자: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네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지도사: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진행자께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진행자: 네, 업무 처리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힘들죠.

지도사: 스트레스는 마음을 지치게 하죠. 그럴 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제시) 이 표는 저희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참가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행자: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알 수 있네요.

지도사: 진행자께서도 참여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진행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지도사: (그림 제시) 이렇게 한 곳의 산림 치유원과 스물일곱 곳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여러 시·도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골라 참가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도사: △△누리집에 신청 방법과 프로그램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끝으로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도사: 숲은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입니다. 숲으로 오세요.

진행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아 속상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산림 치유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를 낮춰 준다고 했다. 그런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생각과 달리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도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내게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알려 준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하나인 ‘쉽숲’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

‘쉽숲’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았던 활동은 ‘나무와 대화하기’였다. 내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그 나무와 20분 동안 대화하는 활동이었다. 나무에 귀를 대고 숲의 소리를 들어 보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무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나를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던 것,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고민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숲을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A]

4.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②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내용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지도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⑤ ‘지도사’는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진행자’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5. <보기 1>은 '지도사'가 받은 전자 우편의 내용이고, <보기 2>는 '지도사'가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의 활용 계획 중 (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질문을 보내 드리니,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2]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3]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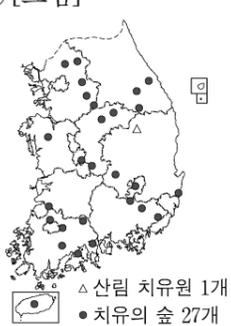
<보기 2>

㉠ [동영상]
 ○ 내용: '숲 명상' 참가자들이 숲에서 새소리 등 숲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장면 (1분 분량)

㉡ [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평균값 변화

참가자 집단	참가 전 점수 평균값	참가 후 점수 평균값
A 직업군	36.6점	12.4점
B 직업군	34.3점	10.8점

※ 32~49점 구간: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해당함.

㉢ [그림]

 △ 산림 치유원 1개
 ● 치유의 숲 27개

- ①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실제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도록 안내해야겠군.
- ②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영상과 소리를 통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해야겠군.
- ③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수치 변화로 알 수 있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 줘야겠군.
- ④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군.
- ⑤ [질문 3]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수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겠군.

6.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터뷰에서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어구를 활용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해야겠다.
- ②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했는데, 그 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였음을 밝혀야겠다.
- ③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혀야겠다.
- ④ 인터뷰에서 숲의 환경 요소가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해야겠다.
- ⑤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언급해야겠다.

7. 다음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과정에서의 자기 점검]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섬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해야겠어.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야지.

- ①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나는 이제 주말이 오면 종종 숲으로 향한다. 숲이 내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②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의 짐을 덜어 낼 수 있었다. 산림 치유의 효과를 실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 ③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숲을 찾아가 숲의 응원을 받고 와야겠다.
- ④ 이제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던 숲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 ⑤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8~10] (가)는 글을 쓰기 전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가)를 작성한 학생이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작문 상황: 교내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 함.
-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 어떤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까? ㉠
 -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
 -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도 인포그래픽일까? ㉢
 - 인포그래픽이 글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은 무엇일까? ㉣
 - 인포그래픽이 널리 쓰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나) 학생의 글

[그림]과 같이 복합적인 정보의 배열이나 정보 간의 관계를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인포그래픽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에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공유가 용이한 인포그래픽의 쓰임을 더욱 확대하였다.



[그림]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 처럼 시설이나 사물 등을 상징화하여 표시한 픽토그램이 있다. 그러나 픽토그램은 인포그래픽과 달리 복잡한 정보를 나타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나타낸 픽토그램은 컴퓨터 자체를 떠올리게 하지만, 인포그래픽으로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정보 처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글은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인포그래픽은 시각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김○○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은 독자들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시각적인 형태로 복잡한 정보를 나타냈다고 해서 다 좋은 인포그래픽은 아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지,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됐는지, 최소한의 요소로 정보의 관계를 나타냈는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좋은 인포그래픽 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시각적 재미에만 치중한 인포그래픽은 정보 전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발표를 하거나 [A]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발표와 보고서의 전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8.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 ①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②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③ 글의 내용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④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⑤ 글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10.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나)의 정보를 활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의 90%가 학교 정보 알림판을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은 인터뷰에서 학생들 대다수는 ‘알림판에 관심이 안 생겨서’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림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선호하며, 인포그래픽이 유용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지의 글에서 인용한 논문을 찾아보니,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가 글만 활용할 때보다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학교에서는 학교 신문에 인포그래픽을 추가했더니 학교 신문을 읽는 학생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건의가 수용되면 알림판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 ①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관심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② (나)에 인용된 인포그래픽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③ (나)에 진술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알림판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평가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④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교내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⑤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그 효율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교내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1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령, 어간 ‘오-’와 어미 ‘-아’가 결합해 [와]로 발음될 때, 단모음 ‘o’가 반모음 ‘w’로 교체되는 것이지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j’도 있으니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도 있겠죠? 그럼 용언 어간의 단모음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반모음 ‘j’로 교체되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 네, ㉠ 로 발음되는 예를 들 수 있어요.

- ① 어간 ‘뛰-’와 어미 ‘-어’가 결합해 [뛰여]
- ② 어간 ‘차-’와 어미 ‘-아도’가 결합해 [차도]
- ③ 어간 ‘잠그-’와 어미 ‘-아’가 결합해 [잠가]
- ④ 어간 ‘견디-’와 어미 ‘-어서’가 결합해 [견더서]
- ⑤ 어간 ‘키우-’와 어미 ‘-어라’가 결합해 [키워라]

15.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랏 :말썽·미 中 國·국·에 달·아 文 文 字·종·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썩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성·이 니
르·고·져 ·흙 ·배 이·셔·도 ㅁ·춤·내 제 ·쁘·들 시·러 퍼·디
:몬·흙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들 字·종·를 鳴·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비 나·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크 히·고·져 흙 쓰·르·미
니·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말썽·미’와 ‘:흙 ·배’에 쓰인 주격 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 ② ‘하·니·라’의 ‘하다’는 현대 국어의 동사 ‘하다’와 품사가 동일하군.
- ③ ‘:이·를’과 ‘:새·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
- ④ ‘:히·여’와 ‘便·便·安·안·크 히·고·져’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쓰였군.
- ⑤ ‘:뿌·메’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쁘다’가 쓰였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금부터 이십 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 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였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들어온
[A] 사람이였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친척이라고는
면 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다
는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삼 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웅대가리나마
다시 장만해 놓고 살림이라고 떠벌였다.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다.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였다.

그의 **자만(自慢)**은 그것뿐만 아니였다. 그는 경기도 출생
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똑똑한 체를 하였다.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
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는 노상 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앓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B] 그럴 때에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 보자는 것이였다. 과연 그날 저녁때였다.
지옥사자 같은 누렁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 넣던 그 엽서였다.
“참, 조황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중략)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테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침지
수동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댕바람에 내 집을 이렇게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엄스럽게** 하는 말이였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십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저런 쾌짌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런데 행랑 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람!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조침지와 수동 아버지는 뜰아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다.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지는 계획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맥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우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벌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렵잖아……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세 개비나 허비했건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댕겨서는 설 새 없이 빠끔빠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 풀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밀어 내던진다.

“웬소리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의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 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소.”
 “그래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암!”

-이기영, 「고향」-

* 사슴: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16.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 대상에 대한 독백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 ②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서술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④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7.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②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 주고 있다.
- ③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정서적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새로운 문물에서 신이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18.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 거리는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
- ②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③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 ④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다섯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안승학’의 심리적인 동요가 제시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30년대 농촌 사회에 등장한 속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①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슴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②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③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 보고서 ‘자만’하는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⑤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종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 전제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20세기 초에 콜링우드¹⁾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벨의 형식론²⁾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번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번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 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즈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나)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①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비평가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 근거로 삼는다.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20.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 ④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21.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 ②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 ③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더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 ④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 ⑤ 특정한 사회 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한다.

22.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방론자가 뒤상에게 :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②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③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 작품입니다.
- ④ 뒤상이 제도론자에게 :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예술 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저의 작품 「샘」 외에 다른 변기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⑤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 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3.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작품 정보 요약

- 작품 제목 : 「그리움」
- 팸플릿의 설명
 -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작품임.
 -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음.
-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됨.

■ 비평문 작성을 위한 착안점

- 쿨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군.①
-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②
-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팸플릿 정보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겠군.③
-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이 그림이 우수한 작품임을 언급할 수 있겠군.④
-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림 속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겠군.⑤

24.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해 <보기>의 A는 ㉠의 관점, B는 ㉡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이다. (나)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피카소, 「게르니카」

A: 1937년 히틀러가 바스크 산악 마을인 ‘게르니카’에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비극적 사건의 참상을, 울부짖는 말과 부러진 칼 등의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고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B: 뿔 달린 동물은 슬퍼 보이고, 아이는 양팔을 뻗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들이 나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그러나 빛이 보인다.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 ①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②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겠군.
- ③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이겠군.
- ④ B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의 주관적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겠군.
- ⑤ B에서 ‘희망을 갈구하는’이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반영된 것이겠군.

25.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인 것은?

- ①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前提)해야 한다.
- ② ㉡: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時期)이다.
- ③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 ④ ㉣: 이 소설은 사실을 근거(根據)로 하여 쓰였다.
- ⑤ ㉤: 청소년의 시각(視角)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①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 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②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③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⑤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⑥ 구별된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 ③ ㉡는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 ⑤ ㉢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나타내기
- ② ㉡: 드러내어
- ③ ㉢: 헤아릴
- ④ ㉣: 마주하기
- ⑤ ㉤: 달라진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러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떠하뇨?”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고,
 “금년 삼월 십오 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심봉사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장승상댁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삼백 석을 주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에게 여쭙즉 쌀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하니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던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랴.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금 생각하되,
 ‘엷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
 하고 춘추 의복 상침 겹깃, 하절 의복 한삼 고이 박아 지어 들여 놓고, 동절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짜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 두고, 행선 날을 세어 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쑈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본다.

(중략)

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새 심봉사 아무란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레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삼 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 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심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삽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 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 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으니 그때 십오 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소서.”

[A]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심에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라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어요.”

심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나?”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에도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짹’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못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 개벽이라.

- 작자 미상, 「심청전」 -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청’과 ‘뻗사람’의 대화 속에서, ㉠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봉사’의 대화에서, ㉠에 등장하는 인물이 ‘심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④ ‘심봉사’가 ㉠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이 ‘심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심봉사’가 ㉠을 듣고 한 말에서, ㉠이 ‘심청’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됨을 알 수 있다.

3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심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황후’가 ‘심봉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 ③ ‘심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심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심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⑤ ‘심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심봉사’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봉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 ①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제’ 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심청이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심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심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이다.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항(抗)미생물 화학제’라 한다.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항미생물 화학제 중 ㉠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 ㉡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다. 감염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 소독제라 한다.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다. 글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은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34.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킬까?
- ②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을까?
- ③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④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⑤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35.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있다.
- ②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 ③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 ④ 알킬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 ⑤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 ② ㉠과 ㉢은 모두, 생활 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 적용 가능하다.
- ③ ㉡과 ㉣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
- ⑤ ㉡은 ㉢과 달리, 인체에 해로우므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37.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가상의 실험 결과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환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 1]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B를 얻었다.

[결과 2]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C를 얻었다.

[결과 3]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D를 얻었다.

○ 학생의 추론: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 보면, [가]고 추론할 수 있어.

(단, 지질 손상 기능과 캡시드 손상 기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화합물 A, B, C, D의 비교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 ①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 ②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 ③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 ④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 ⑤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늑들은 운는다 훈다마는
 ㉠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밥 풋늑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굿 뽕7의 슬크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뽕 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묻내 도하흐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똥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흐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흐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쁘리 갑고자 흐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 이덕무, 「우언(迂言)」 -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늬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늬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윗 곳 뭉?'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넙'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피'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넙'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넙천'에서의 '한홍'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넙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넙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넙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42.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부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뉘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힌 말들을.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울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④ ㉣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⑤ ㉤의 ‘팡팡팡’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위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분석 안 하시고 해설 페이지로 넘기신 거 아니죠?

분석 후에 오세요.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뽕은맛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뽕은맛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뽕은맛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네요. 뽕은맛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뽕은맛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발표입니다. 발표 주제는 **뽕은맛이죠?**

<뽕은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 <뽕은맛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하려 하네요. **발표순서를 안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과학 시간에 단맛, 짠맛, 신맛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맛이 혀의 미각 세포를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뽕은맛은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아 느껴지는 촉각에** 해당해요. **뽕은맛을 내는 성분은 입안에서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죠. 이 자극 때문에 우리는 입안이 텁텁하다고 느낍니다. 그 텁텁한 느낌을 뽕은맛이라고 하는 거죠.**

과학 시간에 기본적인 맛이 미각을 통해 느껴진다고 배운 적이 있다고 하네요. **청중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중의 대답을 듣는 것으로 보아서,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잡아야 합니다. 이때 단맛, 짠맛, 신맛 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정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미각'이라는 정보와, 그것을 수업시간에 배웠다는 '경험'만 체크하면 됩니다. 미각을 배운 것에 반해, **뽕은맛은 촉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뽕은맛을 정의**해주고 있네요. **뽕은맛이 촉각**이라는 사실은 세부정보가 아니라, **핵심정보**입니다. 발표 **주제**이기 때문이죠. <입속 점막과 같은 피부 조직이 자극을 받는다는 것>과 같이 세부적으로 깊게 설명하는 것이 **세부정보**이죠.

또한 일반적인 미각과 뽕은맛(촉각)을 '비교/대조' 해주셔야 합니다.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의 해설을 보셔도, 제가 올리는 '비교/대조'가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뽕은맛이 혀 점막의 단백질과 결합하든, 그 과정에서의 물질이 혀의 점막을 자극하든, 텁텁하든, 텁텁한 것이 **뽕은맛**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뽕은맛이 나는 원인>이라고 통쳐서 기억하면 됩니다. 발표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뽕은맛이 어떻게 해서 느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것은 **감**의 단면입니다.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대답을 듣고) 네, 다들 본 적이 있는 이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 중의 하나인 타닌**입니다. **털** 익은 감의 타닌은 **침에 녹는 성질이 있어** 뽕은맛을 느끼게 해요. 하지만 감이 익어 가면서 **타닌이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기 때문에 잘 익은 감에서는 **뽕은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여준다네요?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의 단면에 보이는 검은 점들을 청중에게 묻고 있으니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감이나 과육 사이에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이라는 예시를 통해 뽕은맛을 설명>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점들이 뽕은맛을 내는 성분인 타닌이든, 타닌이 침에 녹아서 뽕은맛이 나든, 익어가면서 침에 녹지 않는 성질로 변하든 모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정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예시**로 발표 **주제인 뽕은맛**을 설명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물어보면 올라와서 확인하면 되죠.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적당히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뽕은맛을 내는 타닌이 들어 있는 감과 녹차는 당뇨와 고혈압 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고, 대장에서 수분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뽕은맛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네요. 초반에 안내해준 대로 <뽕은맛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 인용을 통해 **뽕은맛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자료를 통해 신뢰도를 상승**시키고 있네요. 감과 녹차에 타닌이 있든, 고혈압을 개선하든, **뽕은맛을 많이 섭취하면 입이 마르든, 속이 불편하든...**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뽕은맛은 몸에 좋는데, 많이 먹으면 안 좋네'라고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비문학이 아니잖아요?

뽕은맛을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 **뽕은맛은 다른 맛과 혼합돼 독특한 풍미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 풍미 때문에 **녹차나 홍차를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변에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뽕은맛이 나는 식품에는 무엇이 더 있는지 여러분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 상으로 발표를 마칠 것입니다.

뽕은맛이 다른 맛과 혼합되면 풍미가 생긴다고 합니다. 녹차와 홍차에 풍미가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녹차랑 홍차라는 **예시**를 통해 풍미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에게 **뽕은맛이 나는 식품을 더 찾아보라고 권유**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출제포인트**죠.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에 사용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발표 중간중간에 청중이 발표를 들으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① 이 선지에서 고민하신 학생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지문에서는 **뽕은맛에 대해 설명을 했고, 선지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했다고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기조대로, **선지를 세밀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평가원은 지문 자체의 난이도를 건드리기보다, 선지를 미묘하게 비꼼으로써 학생들의 판단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선지를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지에서는 분명히 <정의한 후 화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물었습니다. 화제를 제시했냐고 물은 것은, 발표의 시작 부분에 **뽕은맛의 정의를** 하고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뽕은맛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정의를 나중에 해줬으니 틀린 선지네요.

요즘 평가원의 화법과 작문은 이렇게 정보 자체만 아니라,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까지도 물어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제시된 정보와 출제 포인트의 활용 목적도 생각해줘야 합니다.

- ② 청중과의 소통은 했지만 청중의 소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청이 없었기에, 정보를 추가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 ③ 역시 마찬가지로, 청중과 소통은 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중의 대답만 들었을 뿐이죠.
- ④ 청중의 경험을 환기! 처음에 미각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대답을 들었었죠? 아주 전형적인 선지입니다.
- ⑤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②, ③번 선지와 같은 맥락이네요.

2. 다음은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메모	발표 계획
① 청중은 뽕은맛의 느낌은 알지만 뽕은맛과 관련된 지식은 부족할 것임.	→ 뽕은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발표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② 청중은 기본적인 맛은 미각 세포를 통해 느낀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음.	→ 기본적인 맛과 뽕은맛이 느껴지는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뽕은맛이 느껴지는 과정을 설명해야지.
③ 감의 타닌(과육의 검은 점)이 뽕은맛을 냄.	→ 뽕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를 보여 줘야지.
④ 뽕은맛이 나는 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줌.	→ 뽕은맛이 나는 식품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야지.
⑤ 뽕은맛이 나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음.	→ 뽕은맛이 포함되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식품의 예를 언급해야지.

- ① 뽕은맛을 소개하는 발표라는 것을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했죠?
- ② '기본적인 맛 vs 뽕은맛'입니다. 차이를 언급했다는 것이 결국 '비교/대조'를 물어본 것이죠? 6월 모의고사 이후로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해요.
- ③ 타닌에 대해서 시각 자료를 사용하긴 했지만, 검은 점들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지 성분을 분석한 자료는 아니었죠? 적어도 이 정도는 돌아가지 않아도, 뽕은맛을 내는 '다양한' 성분을 '분석'한 시각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④ 연구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뽕은맛의 장점을 설명했죠? 자료의 활용 방안까지 체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⑤ 녹차, 홍차의 예시를 통해 풍미를 설명했죠? 녹차와 홍차를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풍미를 설명할 때 예시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1 : 녹차에 타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녹차의 떫은맛이 물에 우려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봐서 녹차의 타닌은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군.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측하며 발표를 들었네요. 모두 출제 포인트입니다.

학생 2 : 떫은맛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쉽게 접하는 과일인 감과 연결해서 설명하니 떫은맛에 관심이 생겼어. 떫은맛이 나는 건 먹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몸에 좋다니 앞으로 적당히 먹어봐야겠어.

발표를 긍정적으로 들었네요. 발표를 듣고 관심이 생겼으니까요. 또한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며 발표를 들었습니다.

학생 3 : 감의 검은 점이 단맛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떫은맛을 내는 성분이었구나. 감이 익어 가면서 그 성분의 성질이 변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

학생 2와 같이 발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며 듣고 있어요. 또한 감에 대해 알게된 새로운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발표를 들었네요.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하며 발표에서 제시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을 소재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학생 1 → ① → 학생 2 → ② ... 이렇게 풀면 되겠죠?

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죠? 물론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비교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답을 고를 때 문제점의 지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더 편하기에 먼저 설명한다는 의도를 아셨으면 좋겠네요. 실전에서는 확실한 것만 지우고 넘어가면 됩니다.

② 청중에게 익숙한 사물은 감이겠죠? 다만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출제 포인트를 잡아놨으니 우리가 생각해 놓지 않은 것에 대한 선지라면, 과감히 넘기셔도 됩니다. 실화냐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그 정도 실력은 쌓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③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들었을 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써있지는 않네요. 화작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④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는 것은 '학생 1'이죠? 학생 2는 생각 수정만 하고 있습니다.

⑤ '학생 2'와 '학생 3' 모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수정했습니다. 모두 출제 포인트 내에서 선지가 구성되었네요.

[4~7] (가)는 텔레비전 방송의 인터뷰이고, (나)는 (가)를 시청하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산림 치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 국립 산림 치유원의 산림 치유 지도사 이○○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형은 인터뷰, 인터뷰 주제는 **산림 치유**네요.

지도사: 안녕하세요.

진행자: 시청자 분들께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진행자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산림 치유란 피톤치드, 나뭇잎의 초록색 등과 같은 숲의 환경 요소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산림욕, 숲 치료라고도 하시는데요, **공식 명칭은 산림 치유**입니다. **산림 치유원과 치유의 숲**에서는 숲 명상, 숲 체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된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숲 명상 사례**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제시)** 시청자 분들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숲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숲의 짙은 녹음과 맑은 새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도사가 **산림 치유**의 정의와 공식 명칭을 알려주고 있네요. 피톤치드, 나뭇잎의 초록색 등과 같은 숲의 환경 요소 등은 모두 **세부 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의를 해줬다는 사실만 체크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숲 명상, 숲 체조 등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설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세부 정보**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시각 자료를 통해 숲 명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활용 목적!** 중요하죠? 시청자 분들께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잡되, 숲의 짙은 녹음, 맑은 새소리 등은 모두 **세부 정보**로 취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숲에서의 활동이 실감 나게 느껴지네요. 실제로 체험하면 훨씬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동영상에 대한 소감을 드러내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주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통념**에 대해 묻고 있네요.

지도사: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습니다.

중·장년층 뿐만이 아니라 폭넓게 참여하네요.

진행자: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네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추가 정보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진행자께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진행자: 네, 업무 처리가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땐 좀 힘들죠.

스트레스에 관해 질문하고, 답하고 있네요. 위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장점을 물어본 만큼, **스트레스 해소**가 장점으로 나올 것이라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한 진행자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것도 체크해줘야 합니다. 발표인 인터뷰든, 청중이나 대학 상대방의 경험을 묻거나 대답하는 부분이 나오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지도사: **스트레스**는 마음을 지치게 하죠. 그럴 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 제시)** 이 표는 저희가 프로그램 참가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참가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점수의 평균값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장점이 **스트레스 해소**가 맞네요. 이는 절대로 세부정보가 아닙니다. **주제인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을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표라는 **시각 자료**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참과 전, 후를 비교해서 **평균값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료의 활용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 효과** 입증! 이라는 사실만 체크하면 됩니다.

진행자: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잘 알 수 있네요.

지도사: **진행자께서도 참여하시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겁니다. **꼭 한번 참여해 보세요.**

진행자에게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권유하고 있네요.

진행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해 알려 주시겠어요?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알려달라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그림 제시)** 이렇게 **한 곳의 산림 치유원과 스포츠클럽 곳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여러 시·도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장소를 골라 참가 신청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이라는 **시각 자료**를 통해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료의 활용 목적**에 주목해야겠죠?

진행자: 말씀하신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도사: △△ 누리집에 신청 방법과 프로그램 정보가 안내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하고, **누리집**을 이용하라는 답변을 합니다. 일일이 외워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어보면 올라오면 돼요.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은 **기준**에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출제포인트**

입니다.

진행자: 끝으로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지도사: 숲은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입니다. 숲으로 오세요.

진행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숲에 대한 비유로 인터뷰를 마무리 하는군요.

(나)

실화나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가)·(나) 유형은 (나)를 읽을 때 지속적으로 (가)와 연계하며 읽어야 합니다. (가)에 나왔던 내용이 언급되면, (나)와 화살표로 이어주든, 생각해주든 꼭 연결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개의 두 지문으로 나오는 것보다 정보량이 적은 유형입니다. 겁먹지 말고 더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아 **속상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산림 치유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를 낮춰 준다고 했다.** 그런 점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발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쓴 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학생이 느낀 점에 주목하며 읽어야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가)에 언급된 내용이었죠?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는 인터뷰의 내용을 듣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네요.**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내용은 **세부정보**이며, 우리는 이 문단이 학생의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여 동기**라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내 생각과 달리 인터뷰에서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어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내 또래의 다른 청소년들도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찾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내게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알려 준 **누리집에 들어가 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하나인 **'쉽숲'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

자신이 갖고 있던 통념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 역시 (가)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중·장년층만 참여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폭의 연령층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 역시 (가)와 연계하여 읽어야 합니다. □□치유의 숲이든, '쉽숲' 프로그램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부정보**니까요. (가)에 나왔던 내용을 체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학생의 모습만 알면 됩니다.

'쉽숲'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았던 활동은 '나무와 대화하기'였다.** 내 마음에 드는 나무를 하나 골라 그 나무와 20분 동안 **대화하는 활동이었다.** 나무에 귀를 대고 숲의 소리를 들어 보기도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무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나를 표현하지 못해 **담담했던 것.**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니 **마**

음이 후련해지면서 고민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었다.** 인터뷰에서 숲을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쉽숲' 프로그램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무와 대화하기' 프로그램에서 학생이 참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내용이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이라는 **학생의 감정**과, 그것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후련해짐>만 잡아내면 됩니다. 또한 '마음을 토닥여 주는 친구'라고 숲을 비유했던 (가)의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했다는 정보만 얻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의 정보에 집중한 학생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세부정보는 버리세요.**

[A]

4. (가)에 나타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② '지도사'는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내용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지도사'의 답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지도사'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⑤ '지도사'는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며 '진행자'의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① 진행자가 스트레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었죠? 한 번에 풀지 못해도 되고, 기억나지 않아도 됩니다. 딱히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당황하지 않고 다른 선지부터 판단했으면 됩니다. 위치도 기억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② 진행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부분도 없을 것이구요. 이 정도는 돌아가지 않아도 바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에서 진행자가 '잘못 이해하고 '질문'한 부분과 그것을 '바로잡는 부분'이 나왔다면 미리 체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체크하지 않았으면 안 나온 거예요.

③ 계속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했죠?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장점, 운영 장소, 참가 신청 방법 등이요. 세부적인 것은 기억나지 않아도,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④ 스트레스에 관해서 진행자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죠? 기억나지 않으면 진행자의 발화를 체크하면서 '경험'을 중심으로 찾으면 됩니다.

⑤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 진행자의 스트레스를 언급하며 참여를 권유했었죠? 체크했었던 포인트네요.

5. <보기1>은 '지도사'가 받은 전자 우편의 내용이고, <보기2>는 '지도사'가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자료이다. ㉠~㉣의 활용 계획 중 (가)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질문을 보내 드려니,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산림 치유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2]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질문 3]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시겠어요?

—<보기 2>—

㉠ [동영상]
 ◦ 내용 : '숲 명상' 참가자들이 숲에서 새소리 등 숲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장면 (1분 분량)

㉡ [표]
 산림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평균값 변화

참가자 집단	참가 전	참가 후
	점수 평균값	점수 평균값
A 직업군	36.6점	12.4점
B 직업군	34.3점	10.8점

※ 32~49점 구간 :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해당함

㉢ [그림]

-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실제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간접 체험해 보도록 안내해야겠군.
- [질문 1]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영상과 소리를 통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해야겠군.
-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여, 수치 변화로 알 수 있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 줘야겠군.
- [질문 2]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주의군에 속한다는 점을 언급해야겠군.
- [질문 3]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을 제시하며,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소의 수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겠군.

전혀적인 자료의 활용 목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지금까지 기술된 유형과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풀어봅시다.

<보기>부터 분석해야겠죠? <보기 1>에 질문들이 있고, <보기 2>에 자료들이 있습니다. 질문과 자료를 매칭시키는 것이 먼저겠네요. [질문 1] - ㉠, [질문 2] - ㉡, [질문 3] - ㉣ 으로 순서대로 연결되는군요. (가)를 읽으면서 자료의 활용 목적을 스스로 정리했다면 문제에서 바로바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 '간접 체험'이라는 워딩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말고 돌아가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시청자에게 권유했던 사실이 있죠? 동영상을 통해 숲 명상의 사례를 보여주고, 그것에 참여해 보라는 말이 있으니 충분히 '간접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틀리지 않습니다.
- 동영상이니 당연히 '영상과 소리'를 쓰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틀리지 않네요.
- 산림 치유가 효과가 좋다는 것을 표를 통해 제시했었죠? 실제로 수치 변화를 보니 스트레스 점수가 많이 떨어졌네요. 틀리지 않습니다.

④ ㉢은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관련 주의군에 속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등장한 자료가 아닙니다. 항상 자료의 활용 목적에 신경써야 해요.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나온 정보일 뿐입니다.

⑤ 프로그램 장소를 그림으로 제시했었죠?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화작에서도 문학처럼 허용 가능성을 따져주세요.

6.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인터뷰에서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어구를 활용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해야겠다.
-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했는데, 그 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였음을 밝혀야겠다.
- 인터뷰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청소년들도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바뀌었음을 밝혀야겠다.
- 인터뷰에서 숲의 환경 요소가 심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해야겠다.
- 인터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언급해야겠다.

(가)와 (나)를 연계해서 읽었냐는 평가원의 요구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풀 수 있겠네요. ㅎ

- (가)의 마지막에 숲을 비유한 표현이 (나)에서도 사용되었었죠?
- 스트레스 해소가 프로그램 참여 동기였었다고 (나)의 시작 부분을 읽을 때 (가)와 연계해서 생각했었습니다.
-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통념이 (가)와 (나) 모두 나왔었고, 통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부분이 (나)에 제시되었었습니다.
-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사람??? (나)는 학생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되었다는 것을 중점으로 학생의 느낀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글의 주제하고도 동떨어진 것일뿐더러, 다른 사람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⑤ 운영 시기와 장소를 누리집에서 찾았다는 사실이 (나)에서 언급되었었죠? (가)에서 안내한 정보를 (나)에서 활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선지입니다. 꼭 (가)와 (나)를 연계하며 읽으세요.

7. 다음을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쓰기 과정에서의 자기 점검]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쉽숲'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내 마음 상태를 모두 표현해야겠어.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을 나타내야지.

- ①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나는 이제 주말이 오면 종종 숲으로 향한다. 숲이 내가 밟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 ②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눈 후 마음의 짐을 털어 낼 수 있었다. 산림 치유의 효과를 실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 ③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숲을 찾아가 숲의 응원을 받고 와야겠다.
- ④ 이제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던 숲을 기억하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 ⑤ 성격 때문에 속상해하던 나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고 내 성격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제 내 모습을 아끼며 살아갈 것이다.

작문의 유형 중에서도 결말쓰기 문제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보기>에 나오는 조건을 체크하고, 쉬운 걸 중심으로 하나하나 찾아나가면 됩니다.

1.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마음 상태 (느낀 점)
2.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

어떤 걸로 선지를 먼저 걸러낼지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저는 '다짐'이 더 형식적인 측면이라 생각해서, 2번으로 먼저 거르겠습니다. 1번으로 하려면 참여하기 전과 후의 마음 상태가 맞는지, 체크 해보아야 하니까요. '다짐'은 누가 읽어도 형식적으로 드러나니, 2번부터 합시다.

- ① 다짐 같아 보이는 부분이 없네요.
- ② 효과는 느꼈지만 다짐은 없습니다.
- ③ 힘들면 숲에 가야겠다고, 다짐이 있습니다.
- ④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있네요.
- ⑤ 내 모습을 아낀다는 다짐이 있네요.

이제 1번으로 걸러봅시다. (나)를 잘 읽었다면 글손이가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후련하게 해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낀 점에 주목해서 읽었다면 말이죠.

- ③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참여하기 전, 후의 느낀 점이 아니죠?
- ④ 집에 돌아와서 일상을 보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⑤ <속상해하던 = 스트레스>에서 <마음이 풀리고 성격을 인정 = 후련해짐>이네요. 마음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답이네요.

(8~10) (가)는 글을 쓰기 전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가)를 작성한 학생이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의 메모

- 작문 상황 : 교내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서 교지에 실으려 함.
-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 어떤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할까? ㉠
 - 인포그래픽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
 -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도 인포그래픽일까? ㉢
 - 인포그래픽이 글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은 무엇일까? ㉣
 - 인포그래픽이 널리 쓰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

인포그래픽이 글의 주제인 것 같고, 교내 학생들이 예상독자이군요. 또한 작문 계획에 ㉠~㉤이 나와있는 것을 보니, 작문 계획이 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하나하나 물어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를 읽으면서, ㉠~㉤이 나왔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나) 학생의 글

[그림]과 같이 복합적인 정보의 배열이나 정보 간의 관계를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인포그래픽을 정의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정보의 배열이든, 시각적인 형태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다. 우리는 그저 정의를 해쳤고, 그것을 통해 글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벌써 나왔네요.

인포그래픽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정보가 넘쳐나고 정보에 주의를 지속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면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공유가 용이한 인포그래픽의 쓰임을 더욱 확대하였다.

인포그래픽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 나왔습니다. ㉡이 등장했네요. 보통 ㉠~㉡을 순서대로 제시해주는데, 조금은 특이합니다. 물론 순서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은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포그래픽의 정의를 알고 있어요. <그냥 많은 정보를 쉽게 제시하니까 유용함.>정도만 잡고 갑시다. 소셜 미디어도 그에 일조했네요.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셜 미디어까지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그때 올라와서 확인합니다.

인포그래픽과 유사한 것으로, 비상구 표시등의 그래픽 기호처럼 시설이나 사물 등을 상징화하여 표시한 픽토그램이 있다. 그러나 픽토그램은 인포그래픽과 달리 복합적인 정보를 나타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나타낸 픽토그램은 컴퓨터 자체를 떠올리게 하지만, 인포그래픽으로는 컴퓨터의 작동 원리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픽토그램과 비교/대조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표시라는 사례를 통해 픽토그램을 설명합니다. ㉢도 나왔네요. '비교/대조'가 나오니, 집중해야겠죠? 올해의 출제 포인트니까요. 픽토그램은 복합적인 정보를 나타내기 어려운데, 인포그래픽은 쉽나 봅니다. 이를 예시

를 통해 제시합니다. 컴퓨터가 어찌고 저찌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인포그래픽이 더 낫다는 사실만 체크하면 됩니다.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정보 처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글은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인포그래픽은 시각 이미지를 통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인포그래픽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김○○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인포그래픽은 독자들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인포그래픽의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글과 **비교/대조**하고 있네요. 글이 하나하나 읽어야 한다는 점, 인포그래픽은 그에 반해 한눈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그냥 인포그래픽이 글보다 낫다는 점만 체크하면 돼요. @이 나왔네요. 픽토그램과 마찬가지로. 논문이 나오는 것을 보니, 자료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네요.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글과 '비교/대조'해서 설명할 뿐입니다. **핵심정보**를 잡으세요. 각 문단이 말하는 바를 알아내야 합니다.

시각적인 형태로 복잡한 정보를 나타냈다고 해서 **다 좋은 인포그래픽은 아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게 하는지, 단순한 형태와 색으로 구성됐는지, 최소한의 요소로 정보의 관계를 나타냈는지,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좋은 인포그래픽 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 **시각적 재미에만 치중한 인포그래픽은 정보 전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인포그래픽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든, 단순하든, 최소한이든 등 하나도 절대로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젠 입이 아프네요. 실전에서 저 정보들을 다 챙겨가려고 하셨다면 아직 화법과 작문의 본질을 모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포그래픽의 다양한 요소와 주의할 점> 정도로 **핵심정보**를 정리하면 됩니다.

학생들도 쉽게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발표와 보고서의 전달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인포그래픽의 사용을 권유하며 글을 마무리짓네요. 이번 화작 지문은 모두 무엇인가를 권유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수능 때도 무언가를 권유하는 것을 중점으로 낼지 모르니 집중해봅시다! 한 선지라도 더 빠르게 챙겨가면 좋잖아요 ㅎㅎ

8.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② 유형에 대한 부분은 없었죠? 인포그래픽의 다양한 요소에 관한 부분을 읽으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9. <보기>는 [A]의 초고이다. <보기>를 [A]로 고쳐 쓸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지금까지 인포그래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포그래픽의 여러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인포그래픽이 활용되는 분야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 ① 예상 독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가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②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③ 글의 내용에 대해 균형 잡힌 관점이 드러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④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 ⑤ 글의 내용을 설명한 순서대로 요약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써 보는 게 어때?

항상 나오는 고쳐쓰기 문제입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키워드를 잡고 천천히 비교하면 됩니다. <보기>가 초고이므로 <보기>에서 [A]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봐야겠네요. 항상 무엇보다 볼지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보기>를 보니 단순히 인포그래픽의 전망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네요. 그에 반해 [A] 부분은 인포그래픽을 학생과 연결지어서, **학생들이 발표나 보고서에 인포그래픽을 활용하기를 바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나 보고서에 있어서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활용하라는 말이군요. 전망에서 학생, 발표, 보고서, 권유 등의 키워드로 바뀌었다는 점을 체크하고 선지를 살펴봅시다. 키워드가 없으면 과감히 거릅니다.

- ① 탐구해야 할 문제?? 문제는 없습니다.
- ② <예상 독자 = 학생>이죠? 예상 독자는 항상 중요합니다. **예상 독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결국 발표와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 ③ 균형 잡힌 관점? 인포그래픽을 너무 칭찬한 것에 대해 단점도 쓰라는 걸까요? 학생들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④ 글의 도입에서 제기한 문제가 뭘까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문제랑 전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심지어 문제도 없습니다.
- ⑤ 요약은 절대 아니죠.

10. 다음은 (나)를 읽은 학생이 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의 일부이다. (나)의 정보를 활용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설문 조사 결과 우리 학교 학생의 90%가 학교 정보 알리판을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은 인터뷰에서 학생들 대다수는 '알리판에 관심이 안 생겨서'라고 답했습니다.

학교 정보 알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읽고 쓴 글이므로 글의 **주제**인 인포그래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야겠네요. 90%와 같은 수치는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알리판을 학생들이 안 본다는 사실만 체크하면 돼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리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포그래픽을 선호하며, 인포그래픽이 유용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지의 글에서 인용한 논문을 찾아보니,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가 글만 활용할 때보다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학교에서는 학교 신문에 인포그래픽을 추가했더니 학교 신문을 읽는 학생이 3배 늘었다고 합니다. 건의가 수용되면 알리판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아! **건의문**이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어떤 것을 권유하는지 중점으로 읽어야겠죠. 알리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게 해달라는 권유네요. 지문과 연계해서 읽어야겠죠? (가)·(나) 유형처럼요. 글에서 나왔던 논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네요.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글쓴이가 지문에 나왔던 논문을 통해 인포그래픽을 설명했다는 점만 잡으면 됩니다. 또한 인근 학교의 **사례**가 나오는데, 역시 사례를 통해 인포그래픽의 효과를 설명했다는 점만 잡으면 되지, 학교 신문이든, 3배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대한 문제네요. 이렇게 선지가 세밀하게 나오니 **꼼꼼하게, 한 번에 선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 ③ 알리판의 정보를 평가하지는 않았죠? 그저 알리판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일 뿐입니다.
- ④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을 설문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정보 알리판을 읽나, 안 읽나에 대한 설문조사였죠? 틀렸습니다.
- ⑤ 인터뷰가 어딴죠? 설문조사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그 설문조사도 인포그래픽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학교 정보 알리판에 대한 내용이구요. ④번과 같은 맥락입니다.

- ①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관심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그 효과가 확인된 인근 학교의 사례를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 ② (나)에 인용된 인포그래픽 연구 논문과 관련하여,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한 정보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③ (나)에 진술된 좋은 인포그래픽의 기준과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알리판의 정보가 신뢰할 만한지 평가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④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교내 학생들에게 설문한 결과를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 ⑤ (나)에 언급된 인포그래픽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그 효율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교내 학생들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① 인근 학교 사례를 통해 인포그래픽의 효과를 말했죠? 답입니다.

② 지문에 나왔던 논문에 대한 선지네요. 연계해서 읽었다면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논문의 내용을 통해 인포그래픽의 **장점**을 설명했지, 이를 **문제 상황**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 역시 **자료의 활용 목적**에

<보 기>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등장한다.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도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1930년대 농촌 사회에 등장한 속물적 인물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9번의 <보기>입니다. 문학론이 아니라 지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니 읽고 가야겠네요. 여러분이 <보기>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기>의 내용을 지문에 자주 **재진술**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기>를 읽기만 하고 지문에 가서 까먹는다면 읽는 의미가 없어요. 읽었으면 꼭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형이 <소작제와 같은 =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비문학이 아니므로 소작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정도만 추측하시면 됩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네요. 속물입니다.

이 정보를 지문을 읽을 때 계속 재진술하여 적용해줍니다.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 <소작제>, <속물적 인물형> 이 정도 키워드를 잡고 가면 되겠네요.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설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인공, 등장인물의 상황과 정서를 체크해야 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출제 포인트에 대한 서술이 나왔는지 등을 계속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또한 화자와 같이 세부정보와 핵심정보를 나누어서,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화자보다는 세부적인 내용도 챙겨야겠지만요.

안승학은 원래 이 고을 읍내에서 살았다. 지금부터 이십년 전만 해도 그는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였다.

안승학이 **주인공**인가 봅니다. 찌그러진 오막살이를 했던, 안 찌그러졌든, 콩나물죽이든 콩죽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런 건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안승학이 가난했다는 사실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수백 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서 집 **사음*까지** 얻어서 이 동리로 옮겨 앉은 것이다.

지금은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네요. 수백 석 추수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 대단히 부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고, 안승학이라는 사람이 매우 속물적인 인간상임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그의 **성격을 바탕으로 납득**하면 됩

니다. 절대로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A]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 만한 일이었다. 그는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이 타관에서 떠들어 온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 고을에는 그의 일가친척이라고는 먼 서기를 다니는 아우 하나밖에 아무도 없다. 그의 부친은 경기도 죽산이라던가 어디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전이었다는데 승학이가 성년 되기 전에 별세하고 그의 모친도 부친이 돌아간 지 삼 년 만에 마저 세상을 떠났다 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아내와 어린 동생 하나를 데리고 이 고장으로 들어왔다. 이 고을 읍내에는 그의 처가가 사는 터이므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 외우거나, 집중해서 읽으려 했다면 아직 기출 분석이 더 필요합니다. 고전소설을 많이 풀어본 학생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저 안승학의 **근본**에 대한 요약적 서술임에 분명합니다. 여길 읽으면서 서술적 특징으로 요약적 서술이 생각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러한 선지의 처리가 많이 연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안승학이 매우 가난했고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문단입니다.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면 서기를 다니는 아우이든, 그의 부친이 경기도 죽산에서 호방 노릇을 하던 아전이든, 승학이가 어쩌구.. 다 필요없는 **세부정보**입니다. 주인공의 상황임을 알고, 그것만 체크했으면 충분합니다.

처가도 역시 가난하였으나 그래도 처가 끝으로 웅대가리나마 다시 장만해 놓고 살림이라고 떠벌였다.

웅대가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처가도 가난했는데 안승학보다 나았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무렵이 마침 **경부선이 개통**한 직후이다. 이 근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다.

<경부선이 개통 = 사회적 변화>, <보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위가 상승한 사람이 안승학이었기에, '이제 안승학의 지위가 올라가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변화를 보고 <경이로워 하는 사람들>에도 주목하셔야 하구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요. 물론, 안승학의 사회적 지위 변화보다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이긴 합니다.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먼저 타고 서울을 가 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였다. 그때 그는 어떤 친구의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하러 따라간 것이었다.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편승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네요. 안승학의 성격을 생각해봅시다. 속물적이고, 이기적이고.. 충분히 자랑할 성격인 것 같습니다. 고작 친구의 심부름 따라서 간 것임에 불구하고 애기하는 것도 안승학의 성격으로 미루어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저 여기의 모든 문장을 '속물적이네~', '속물적이야~' 하고 생각하

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의 자만(自慢)은 그것뿐만 아니었다. 그는 경기도 출생이라고 이 지방에서는 제일 똑똑한 체를 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그의 자만은 위에 나왔던 그것이겠죠? 계속 지시어 잡아주시고, 안승학이 똑똑한 체를 했다는 사실도 당연히 연시하게 여기면 됩니다.

[B]

우편소가 새로 생긴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몰라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장승같이 늘어선 전봇대에는 노상 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무시로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소 안에는 무슨 이상한 기계를 해 얹히고 거기서는 무시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그것도 무슨 귀신을 잡아넣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편소 = 사회적 변화>입니다. 우편소를 그냥 우편소라고 읽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보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것도, 위에서 기차와 전봇대에 대해 놀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결국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일 뿐이에요. <장승같이 늘어선 ~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라고 하였다.>는 모두 <사회적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통 치면 됩니다. 귀신 얘기가 <사람들의 겁>과 연결만 되면 됩니다. 저는 실제로도 현장에서 저런 서술은 안 읽습니다. 상황 잡았고, 정서 잡았으면 됐잖아요?

그럴 때에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그들 앞에서 시험해 보였다.

여기서 <이 귀신을 부리는 재주 = 우편소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안승학이 또다시 똑똑한 체를 하며 사람들을 놀리는 것 뿐입니다.

그는 엽서 한 장을 사서 자기 집 통호수와 자기 이름을 쓰고 편지 사연을 써서 우편통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담하기를 이것이 오늘 해전 안에 우리 집으로 들어갈 터이니 가 보자는 것이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서술입니다. 그저 안승학이 우편소를 이용하고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마술을 부리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네요.

과연 그날 저녁때였다. 지옥사자 같은 누렁 옷을 입은 사람은 안승학의 집에 엽서 한 장을 던지고 갔다. 그것은 아까 써 넣던 그 엽서였다.

“참, 조촐속이다!”
하고 그들은 일시에 소리를 질렀다.

실제로 우편이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정서만 잡으면 됩니다.

(중략)

안승학이는 사랑방에서 혼자 앉아서 금테 안경을 콧잔등에

걸고는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김선달 조침지 수동이 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사랑방, 금테 안경, 문서질 등의 어휘를 보아서 안승학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했음을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위가 상승한 안승학에게 다섯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승학이 <마음에 불안>을 느끼는 것을 보니 별로 마주하기 싫은 사람들인가 보네요. 안승학과 대립구도를 이루는 인물들인가 봅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면 주인공과 어떤 관계인지,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을지 잡아야 합니다.

그래 그는 붓을 놓고서 마당을 내려다보며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댕바람에 내 집을 이렇게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주인을 찾고 들어와야지.”
매우 위엄스럽게 하는 말이였다.

안승학의 성격답게 위엄스럽게 얘기하네요. 앞에서 자만하고, 자랑하고 했었죠? 그 성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해하면 됩니다. 안승학의 이러한 행동을 납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구보고 말하십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선달이 받는 말이다.

김선달이 누군가 했더니, 위에 나온 다섯 명중 한 명이네요. <대문 기둥에대 대고 말씀하십시오.>를 보고 김선달이 안승학을 비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생각만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쓱 넘어가니까 못 체크하는 거예요. <다섯 사람 vs 안승학>이라는 구도를 알고, 그 상태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저게 비꼬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저런 쾌쩍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런데 행랑 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더람! 안승학은 속으로 분해했다.

안승학이 화가 났습니다. 김선달이 비꼰 것에 대해 정서를 드러내고 있네요.

그러나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왜 호령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안승학이 사회적 지위가 오르는 했어도 그저 허세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중략) 전의 서술에서도 계속 허세를 부리는 안승학이었으니까요.

희준이와 인동이와 김선달은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가 앉았다.

조침지와 수동 아버지는 뜰아래서 올라갈까 말까 하는 눈치다.

적극적인 희준, 인동, 김선달에 비해 조침지와 수동 아버지는 소극적이네요. 저 인물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섯 명이 안승학이랑 대립구도라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비교/대조’ 해줬으니 체크해줘야죠. 성격도 알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무슨 일들인가?”
안승학은 얼른 이야기나 들어보고 돌려보내자는 계획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책을 찾아왔을 때는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우고 갔습니다만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희준이가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드디어 어떤 사건인지 나옵니다. 안승학과 다섯 사람 사이의 갈등 요소를 알 수 있게 되었네요. 다섯 사람 측에서 어떠한 **요구 조건**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따위 이야기를 할 작정으로 이렇게들 식전 아침에 왔어? 못 들어주겠어! 벌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어렵잖아…… 괜히 그러지들 말고 일찍이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할 것이야…….”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 없대네요. 이기적인 안승학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어떤 요구 조건이든, 안승학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에 저 둘이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을 테니까요. 나락이나 베라는 것으로 보아, 나락을 베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요구 조건인가 봅니다.

안승학이는 긴 장죽에 담배를 한 대 담아 가지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성냥을 세 개비나 허비했지만 잘 붙지 아니하므로 그래 네 번째 불을 댕겨서는 실 새 없이 빠끔빠끔 빨다가 그만 입귀로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리고서는 제 풀에 화가 나서 담뱃대를 탁 밀어 내던진다.

담배에 불을 붙이든, 뭐를 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안승학이 **화가 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 침을 주르르 흘린다는 것을 보면 해학적이기도 하구요.

“웬스리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의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서 잘들 의논해서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란 말이야!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 어서들 가소.”
“그래 정녕코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암!”

시간 낭비 하지 말고, 물질상 손해도 싫어하는 것을 보아 이기적인, 속물적인 안승학의 성격을 알 수 있네요. 역시 요구 조건도 들어줄 수 없답니다. 이렇게 제가 읽은 것처럼 자주 <이기적, 속물적>이라는 키워드와 <사회적 변화>, <지위 상승> 등의 키워드를 자주 **재진술**하며 소설을 읽어야 합니다. 문학 역시 모든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 이기영, 「고향」 -

* 사음: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16.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 대상에 대한 독백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제시되고 있다.

→ 여기서 서술 대상은 안승학이죠? 독백은 기본적으로 대화체에 속합니다. [A] 부분은 서술자가 안승학의 근본에 대해 알려줄 뿐, 어디에도 대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네요. 또한 정서적 반응도 없습니다. 항상 말씀 드렸듯이,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 정말 확실하게 이쁜 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서술상 특징에 대한 문제는요.

②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안승학의 과거에 대해 서술해주고 있으니 회고적 서술은 인정해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성찰적 태도는 없습니다. 성찰적 태도가 있으려면, 안승학이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생각하고, 정서적 감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안승학의 생애만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③ 서술 대상에 대한 병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병렬적 서술이라 하면, 안승학에 대한 ‘독립적인’ 정보가 연달아 제시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안승학이 가난했다는 정보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주 안에서 안승학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기 때문에 병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승학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정말 애매합니다. 안승학에 대한 ‘정보’ 자체로 반복을 처리하면 반복이라 볼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워딩의 반복을 뜻하면 틀렸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해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매하면 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발문 자체가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걸요.

④ 서술 대상에 대한 묘사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안승학에 대해 묘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묘사라고 하면, 외양을 묘사하거나 공간을 묘사하는 등 장면이 뚜렷하게 상상이 될 정도로 시각적으로 구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찌그러진 오막살이에서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던 처지>라는 것을 보아 상상은 가능하지만, 이 정보 외의 나머지 서술은 그리 구체적으로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또한 정보가 단계적으로 제시되려면, 안승학이 가난했다가, 처가에서 어떤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계기를 거쳐서 부자가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서술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서술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했다가 지금은 부자라는 내용밖에 없네요. 심지어 2문단은 그러한 단계적 서술이 하나도 없구요. ‘단계적’ 서술이라는 선지가 평가원에서 제시된 적이 없기에 (있어도 시간을 단계적으로 서술했다는 선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문학 개념어가 나왔다.’, ‘평가원스럽지 않다.’ 라는 말이 나오지만, 어휘력과 선지 판단 기준을 통해 이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애매한 서술은 **가장 적절한 선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정답 선지는 우리가 흔히 봐왔고, 확실히 판단 가능한 선지를 제시할 테니 그걸 믿고 공부합시다.

⑤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서술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개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선지에 대한 해설을 하기 전에, 실전에서 태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A] 부분을 읽으면서 ‘요약적 제시’가 떠올랐어야 합니다. 고전 소설에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사건이나 한 인물의 생애를 하나에서 두 문단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요약적

서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개괄적'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개괄적'이라는 단어는 어휘력으로 커버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실 어휘력의 문제예요. 개괄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모른다면, 포괄적이고 생각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내야 했습니다. 6평에 '공시적', 9평에 '개괄적' 등의 쓰지 않던 워딩으로 문제를 내는 것으로 보아 평가원 출제진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냥 '요약적 제시'가 보이면 아무 의심 없이 5번 선지를 찍고 넘어가어야 합니다. 기출 분석이 된 학생이라면, 상위권이라면, 모두가 그랬을 거니까요. 실제로 커뮤니티나 다른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헛갈리긴 했어도 답이 5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평가원을 믿고 찍고 넘어갔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평가원 분석이 잘 되어 있고 문학에서의 선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세운 학생들에게는 여기서 시간이 끌릴 이유가 없었겠죠. 문학 선지의 예민함이 더 올라갈 예정이니 조금 더 신경써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7.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사람들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이미 지문을 읽으면서 체크했었죠?
- ②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 주고 있다.
→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쓰이는 것은 맞지만,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B] 부분 전체가 안승학이 마을 사람들을 농락하는 부분이지,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부분이 아닙니다.
- ③ 새로운 문물의 이용 방법을 알고 있는 인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문물은 우편소겠죠? 안승학과 마을 사람들 간의 지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 ④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도래에 대한 정서적 충격을 표현하고 있다.
→ 사회적 변화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났지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겉을 잔뜩 집어먹고 있었다.' 등이 있네요.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적절한 선지가 '왜'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히 말도 안 되는, 사실 관계상 절대로 허용해줄 수 없는 선지를 빠르게 골라내는 것이 실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 ⑤ 새로운 문물에서 신이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낯선 문물이 도입될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걸 보면 당시의 문화적 환경을 알 수 있다는 선지는 충분히 허용 가능하죠.

18.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요구 조건'을 관찰시키러 온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표출되고 있다.
→ 요구하러 와서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십시오."라고 비꼬는 김선달의 태도는 이미 체크했죠? 주인공과 등장 인물이 대립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 ② '요구 조건'의 이행을 요청하는 '회준'에 대해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요구 안 들어준다고 분명히 안승학이 얘기 했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 ③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회준'에 대해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다.
→ 첫째로, 요구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지도 않았고 안승학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승학은 그저 다섯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불안해 했을 뿐이지, 경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정서를 체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정서가 선지에 써 있다고 무턱대고 '맞지!' 하고 체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실화나에서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자료의 활용 목적, 출제 포인트의 활용 위치를 체크하듯이, 문학에서도 정서가 나오면 그 정서가 어떻게 선지에 쓰였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 ④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안승학'과 '다섯 사람' 간의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이게 뒷 부분 전체의 주제였죠? 핵심 중에서도 핵심적인 선지입니다.

- ⑤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다섯 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안승학'의 심리적인 동요가 제시되고 있다.
→ 여기서 제시된 <심리적인 동요 = 불안>입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는 위에서 읽었기에, 한 번 더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전에서 도요. 만약 선지에 <보기>의 내용이 나와서 판단이 힘들다면, 그때 보기 돌아가서 세세하게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 ①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슴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조각제를 이용하여 지위가 변한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안승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조각제라는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해서 말이죠. <보기>에도 나와있습니다. 틀리지 않네요.
- ②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은,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었던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앞 부분은 안승학을 말하는 거죠? 근대 문물이 유입될 때 변모했다는 것도 안승학을 말하는 거구요. 틀리지 않네요. 이런 선지를 빨리빨리 넘겨야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③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 보고서 '자만'하는 인물의 행동은, 근대 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친구 심부름으로 타보고서 허세부리는 안승학은 충분히 납득하면서

읽었기에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근대 문물의 경험 = 목판차 경험>으로 자랑했죠? 과시했다는 선지는 충분히 허용 가능하죠.

④ ‘위엄스럽게’ 하대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은, 반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도 맞고,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것도 맞지만, 호령을 하지 않은 것이 반감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방향성을 따졌을 때 말이 안 되죠. 호령을 해야 반감을 나타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승학은 그저 쫓았을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허세만 부리던 안승학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죠? 그리고 다섯 사람이 안승학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존댓말을 쓰는 것으로 보아 안승학의 지위를 인정은 하고 있지만 달갑지 않게 생각할 뿐이죠.

⑤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종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을 보여 주는군.

→ 서로 간의 물질상 손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는 말하지만 나락을 베긴 베라고 협박했죠? 안승학이 자신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속물적이라는 사실은 <보기>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 요약적 제시에 대한 기출 예시

[2011.11B 속향전]

“㉞ 상서께서 명을 내리시어 속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신 고로 원님이 상서 명을 기억하지 못하여 어젯밤에 속향을 잡아다 죽이려고 큰 매로 치라 하되 집장 사령이 매를 들지 못하여 죽이지 못하였사오나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옵고 큰 칼을 썩워 옥에 가두었나이다.”

[2016.06A 흥계월전]

[B] ‘오왕(吳王)과 초왕(楚王)이 반하여 지금 장안을 범하고자 하옵나이다. 오왕은 구덕지를 얻어 대원수를 삼고, 초왕은 장맹길을 얻어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려 호주 북지 십여 성을 항복 받고 형주자사 완태를 베고 짓쳐오매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사와 감히 아뢰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으소서.’

[2016.06B 흐르는 북]

㉠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한 민익태

[2018.06 큰 산]

뒤에야 알았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난 그날 밤에 아내는 그 고무신짝을 들고 골목길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길가의 아무 집이건 가림이 없이 여느 집 담장으로 횡 던졌던 모양이었다. 물론 아내는 제 자존심도 있었을 터여서 그런 얘기를 나에게서 입 밖에 내기는커녕 전혀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앞의 멧대거리 없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 그런 일은 없었던 셈으로 족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점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거리로 나와 있었지만 아내는 종일토록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 미심한 느낌도 나보다도 훨씬 더했을 것이다. 그렇게 아내는 이미 그 고무신짝의 논리 속에 흠뻑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두울 무렵에 혼자 나갔을 것이다. 쓰레기통 속에서 회끄무레한 남자 고무신짝을 끄집어냈을 것이다. 골목길을 오르내리며 마땅해 보이는 장소를 물색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아무 집이건 담장 너머로 횡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쯤으로 액땀을 했다고 자처해 버렸을 것이다.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문단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의 정의>가 **주제**인가 봅시다. 항상 독서를 읽을 때는 이 지문이, 이 문단이 어떤 정보를 제시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주제**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 전제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방/론>을 주장했네요. 대상과 그것에 대한 재현, 여기서 재현은 예술을 뜻하겠죠? 이런 사소한 것부터 재진술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대상과 재현이 닮아야 한다는 게 모방/론이네요. 닮아야 하니까 '모방'론이겠죠. 꼭 이렇게 개념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야 합니다. <재현의 / 투명성 / 이론> 역시 마찬가지이죠. 예술이 대상을 닮아야 한다는 즉, 모방해야 한다는 거죠! '투명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재현이 대상을 투명하게 모방해야 한다는 이론이 '재현의 투명성 이론'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방'이라는 워딩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어주세요. 여기서 **모방**을 해야 **예술의 정의**에 부합하나 봅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모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가의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 = **모방**을 하지 않아도 예술로 인정>해주게 되었네요. 그런 이론이 <낭만주의 사조>인가 봅시다. 감정 표현을 중요시 '하니까' <낭만/주의>인가 보네요. 꼭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예술의 정의인 모방에서 벗어난 낭만주의 예술이 등장하면서 예술의 정의가 달라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네요. 계속 **예술의 정의**라는 **주제**와 엮어서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정보는 <모방 → 낭만주의>일 것이구요.

2문단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콜링우드라는 사람은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 표현/론>을 통해 낭만주의 예술이 등장하면서 생긴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네요.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한다는 워딩을 **예술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콜링우드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을 표현하니까 표현/론인가 봅시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진정한 예술 작품 = 예술의 정의>이죠? 예술의 정의는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 = 모방>이 아니라 <정신적 대상 = 감정>이네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개념들로 재진술 할 수 있는 개념은 계속 재진술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 = 감정 = 표현론>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나왔네요. 모방론과 낭만주의 예술로부터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두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비교/대조'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모방/론 vs 낭만/주의>로부터 <표현/론>과 <형식/론>이 나왔으니, 표현론과 형식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집중해봅시다.

벨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문장이 세 줄을 넘어가는 순간 긴장해야 합니다. 의미파악이 한번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두세번 읽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 = 의미 있는 '형식'>이라는 수식된 정의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아무나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은 아니네요. 무언가 예술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알아낼 수 있는 어떠한 예술적 형식인가 보네요. 그러기에 <의미 있는 / 형식>이겠죠. 아무나 알 수 없으니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비평가들에게 미적/정서를 유발한다면 그것을 예술이라고 보았네요. 즉, 어떠한 의미 있는 **형식**을 알 수 있는 비평가들이 인정해야 그것을 예술로 보았다는 형식/론의 **예술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3문단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변기가 예술 작품으로 인정 되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변기와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또다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네요. 즉, 형식/론이 부정당한 것입니다. <모방론 → 낭만주의>와 <형식론 → 샘(변기)>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전자에서는 표현/론과 형식/론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두 가지 이론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집중하며 갑시다.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고 의식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예술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다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정의할 수 없으니까 <예술 / 정의 / 불가론>이겠네요. 납득해야 합니다. 모든 예술이 어떠한 공통적 요소를 가지는 것은 힘들죠. 따라서 정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걸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걸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문의 서술은, 모방론이든, 표현론이든, 형식론이든 무언가 예술을 정의하고는 있지만, 그 이론만으로 예술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한 얘기랑 똑같죠. <예술/정의/불가>라는 뜻입니다. 계속 재진술 합시다.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예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랑 같은 말**이죠?

4문단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변기가 형식론을 공격함으로써 나온 또 다른 이론은 <제도/론>이네요. 제도론이 왜 제도론인지 납득해 봅시다. 여기도 수식된 정의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쪽 읽은 뒤에 다시 문장의 첫 부분으로 돌아와서 납득하고 진행해야 해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 = 제도적으로 예술이라고 정의>랑 같은 말이죠? 어떤 누군가에 의해 감상의 / 후보 / 자격을 부여 받았다는 말 자체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 평가적 이론>이라네요. 일단 문장을 잠깐 끊고 수식된 정의를 납득부터 하고 갑시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니, 예술이라고 평가하니까 평가적/이론 이겠네요. 위에서 보았던 모방, 표현, 형식론 얘기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진 예술 정의 불가론과 제도론의 공통점, 차이점을 의식적으로 찾으려고 했어야 합니다. 예술 정의 불가론은 예술에 대해 아예 정의를 안 해버리는 이론이고, 제도론은 어떤 기준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을 띄고 있습니다. 애초에 형식론이 공격받으면서 “형식이 완전히 똑같아도 예술이라 못하는데, 뭐가 예술임?”이라는 공격에서 나온 이론들이기에 예술을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는 측면은 같은 것이죠. 실전에서는 공통점, 차이점만 찾더라도, 분석 후에는 글의 구조상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평가할 수 없다는 제도/론은 <일정한 절차와 관례 = 제도>를 거치기만 하면 예술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분류적/이론입니다. 계속 ‘납득’하세요. 생각하시구요.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논의의 의의를 말하고 있네요. (의의 의의 ㅋㅋㅋㅋㅋ 스)

(나)
1문단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제가 실화냐(화작교재)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가)와 (나)는 연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보량이 줄어듭니다. (가)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나왔었죠? 여기는 **예술의 감상과 비평이 주제**인 가 봅니다. (가)에서 계속 연결해 가며 읽었듯이, 여기서도 연결하며 읽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결국 **‘예술의 감상과 비평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말이죠?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벌써부터 나누고 시작하네요. 2020학년도 09월 비콘 지문을 보시면 같은 방식의 서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문 아니라도 옛날 지문에는 이런 구조의 글이 많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으로 “맥락/주의, 형식/주의, 인상/주의가 하나씩 설명되겠구나. 공통점, 차이점을 잡고 ‘비교/대조’ 해야지!”하고 생각하셔야겠죠? <맥락/주의는 예술과 관련된 맥락을 중심으로 감상 혹은 평가를 할 거고>, <형식/주의는 뭔가 형식/론이랑 비슷할 거 같죠?>, <인상/주의는 인상에 남는 걸 중심으로 비평하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2문단

㉠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갖는다.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배경 = 맥락>이죠? 작품의 창작될 당시의 **맥락**을 중심으로 감상하나 봅니다. 이렇게 정보량이 쏟아지는 인문지문은 보통 이론들의 이름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줍니다. 납득하면 까먹지 않기 때문이죠. 1809의 하이퍼리얼리즘, 1811의 목적론 등을 보시면 납득이 갈 거예요.

비평가 **텐**은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경제·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등을 예술 작품 비평의 중요한 ㉠ **근거**로 삼는다.

똑같은 말이네요. <예술 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 맥락>이니깐요. 이런 정보들은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세세하게 물어보면 올라와서 확인하면 돼요.

그 이유는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하며, 예술가가 속한 사회의 특성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이 ~ 구체화하며, ~ 반영한다 = 작가가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랑 같은 말이죠? 정말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포함하여 가급적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다.

맥락을 고려할 때, <시대적 상황>과 <심리적 상태>를 모두 고려하네요. 외면과 내면이 나뉘는 것이기에, 의식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다만 둘 다 **맥락**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닌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맥락이 ‘상위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핵심 정보라는 거죠.

3문단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는 자칫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여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맥락주의가 작품에 집중하지 않고 ‘맥락’에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네요.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형식주의와 인상주의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서술 방식 같지 않나요? <모방론 → 낭만주의>, <형식론 → 샘(변기)>와 같은 방식의 서술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형식주의와 인상주의가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대조’해야 합니다.

형식주의 비평은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 구조적 유기성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식주의는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 = 맥락> 대신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것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네요.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형식주의이고, 맥락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주아주아주 당연합니다.

또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앞에서 나왔던 형식/론이 떠올라야 합니다. 형식론도 고유한 ‘형식’을 중요시 했던 이론이니까요.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은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와 비례, 율동, 강조 등과 같은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형식주의 비평가니까 <조형 요소·조형 원리 =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겠네요. 사물, 인간, 풍경은 묘사되는 대상일 뿐이지 형식이 아니니까요.

4문단

㉠ 인상주의 비평은 모든 분석적 비평에 대해 회의적인 ㉡ 시각을 가지고 있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인상주의를 시작하기 전에, 형식주의랑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을지 의식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상주의는 모든 분석적인 비평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술을 규칙이나 자료로 판단할 수 없대네요. 또 무언가가 생각납니다. <예술 / 정의 / 불가론>, <제도론>이 떠오르네요. 둘 다 예술을 어떤 특정한 기준, 관점으로 정의내릴 수 없다는 이론이었으니까요. (나) 부분의 <형식주의, 인상주의>에 대한 서술은 (가)의 <형식론 → 예술정의불가론, 제도론>과 같네요.

“훌륭한 비평가는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 시킨다.”라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 = 인상>인가 봅니다.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상만을 가지고 예술을 비판하는 거죠. 즉, 예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한다.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 = 맥락>이죠? 맥락과 상관없이 <비평가의 자유 의지 = 비평가가 받은 인상>대로 예술 작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나) 지문 모두 **재진술일** 뿐입니다. 상위개념, 핵심정보, 주제를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서술을 바꿔주면 돼요. 6평의 과제와 아주아주 똑같은 지문이었습시다. 정보량이 많고, 나열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그 이론들이 나온 배경과, 서술적 구조를 잘 파악하며 납득하려 노력했다면 이렇게 쉬운 지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 부분은 아예 정보량이 없네요. (가)에서 했던 얘기들만 주구장창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평가원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정보를 남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 대립되는 관점은 있지만, 하나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 ②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이론들을 평가? 종합적 결론? 모두 없네요.
- ③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개소리죠? 서로 간의 차이는 있네요.
- ④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 = 모방론에서 낭만주의, 형식론에서 변기, 맥락주의에서 형식과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두 대안적 관점인 표현론, 형식론, 형식주의, 인상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왔구요. 수업 때 계속 강조했듯이 제시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확실히 잡았다면 어렵지 않게 풀렸을 문제입니다. 물론 (가)와 (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해서 평소보다는 까다로운 문제이긴 했어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 · (나) 모두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순도 아니구요. 이론들이 나열되어 있긴 하지만 '시대순'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걸렸어야 해요.

21.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 = 의미 있는 형식>이죠? 예술적으로 감각이 있는 비평가가 어떤 '의미 있는 형식'을 느끼는 것이 형식론에서의 예술의 정의였으니까요. 기억이 안 난다구요? 형식론에 돌아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어렵고, 길기에 한 번에, 빠르게 판단이 안 돼서 시간이 끌렸을 학생이 많을 확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조금하더라도, 형식론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판단하면 충분히 한 번에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 ②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 모든 관람객이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 있는 비평가죠? ②번 판단할 때 정확히 읽고 한 번에 판단하셨으면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 ③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더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 애초에 형식/론은 <정신 =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형식이 갖추어야 예술이지, 낭만주의나 표현론처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예 핵심에서 벗어난 선지입니다.

- ④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 <작가 내면의 관념 = 낭만주의 · 표현론>이죠? 역시 핵심에서 벗어나는 선지입니다. '형식'과 관련이 없으면 그냥 거르면 돼요. 하나하나 일일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⑤ 특정한 사회 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한다.
→ 모든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감각이 있는 예술가였죠? 그리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 = 제도론>입니다. 형식론과 매우 동떨어져 있네요.

22.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번 9평에서 시간 끌기 요소로 쓰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찾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읽으면서 충분히 납득했다면, '뒤상' 말고는 돌아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념들을 '비교/대조'하는 문제인데, 이는 읽으면서 모두 해냈으니까요. 다만, 문제가 안 풀리면 그때 돌아가서 **천천히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선지에 나오는 개념들에 대해 <누구가 누구에게>라는 부분을 읽고,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먼저 떠올린 후 나머지 선지를 읽어야 합니다.

- ① **모방론자가 뒤상에게** :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뒤상'이 누군가 보니, 변기가 예술 작품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방/론자는 예술이 예술이 되려면 어떤 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잡은 후에 나머지 선지를 읽어야 헛갈리지 않습니다. <변기 그 자체 = 모방X>입니다. 따라서 '모방'론자의 입장에서 그 변기는 절대로 예술이 될 수 없습니다. 틀렸네요. 답입니다.
- ②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낭만/주의는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모방/론은 위에서 봤습니다.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 모방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 = 낭만X>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를 인정할 수 없네요. 당연하죠. 감정이 들어가야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중요한 선지입니다. 모방론에서 표현론과 형식론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묻는 것이니까요. 핵심정보가 변화하는 지점을 정확히 잡았냐를 묻고 싶었던 거예요.
- ③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 작품입니다.
→ <표현/론자 = 낭만주의>이죠? 둘 다 감정과 생각을 중요시하는 사람

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 표현론 = 낭만주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 = 모방>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이라는 표현론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④ **뒤상이 제도론자에게** :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예술 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저의 작품 「샘」 외에 다른 변기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뒤상은 변기였습니다. 제도/론은 제도적으로 예술가든, 비평가든 그 작품을 인정하면 그 작품이 예술이 된다는 이론이었구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예술 작품 = 제도론>의 주장은 ‘샘’ 말고도 다른 변기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맞죠.

중요한 선지입니다. 뒤상의 변기 얘기가 형식론의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해 나온 정보인데, 이 선지 자체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형식만 같으면 예술이라는 형식/론의 문제점을 <예술은 따로 정의할 수 없다는 = 예술/정의/불가론>과 따로 <예술은 없고, 제도적으로 인정만 해주면 예술이라는 = 제도론>으로 해결했으니까요. 형식론으로부터 제도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선지입니다.

⑤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 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예술 정의 불가론자는 예술은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였죠? 표현론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해야 한다는 낭만주의랑 같은 맥락이었구요. 따라서 <관념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 = 표현/론>의 명제가 판단 불가능이라는 선지의 서술은 옳습니다. ④번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정한 형식이 나 기준에 맞추어서 예술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3.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 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메모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작품 정보 요약
- 작품 제목 : 「그리움」
- 팸플릿의 설명
 -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작품임.
 - 화가 A의 예술가 정신은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음.
-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됨.

→ <보기>라고 볼 수 있는 <작품 정보 요약>부터 지문을 적용해 봅시다. 항상 <보기는 지문을 바탕으로>로 읽어야 해요. 알고 있죠?

- A가 아버지의 낡고 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작품이라는 것을 봐서, 맥락/주의를 떠올릴 수 있겠네요. 신발의 설명에 ‘굳이’ <아버지의 ‘낡고’ ‘바랜’ 신발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 A의 정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네요. 이는 작가의 감정, 생각을 중시하는 표현론과 연결될 수 있겠네요.
-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맥락/주의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
- 따뜻한 계열의 ‘색’을 얘기하는 것을 보니, 표현론 생각이 나아졌네요.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 콜링우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겠군. ①

→ 콜링우드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우리가 목적론과 우주론에서 연습했듯이, 이 선지의 생각이 어떤 주장, 이론의 내용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콜링우드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 감정 = 낭만주의 = 표현론>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지점으로 가서 콜링우드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콜링우드 = 표현론>이기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 디키의 관점을 적용하면,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②

→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 = 맥락주의>겠네요. 작품이 소재가 된 ‘신발’이 누구의 것이었냐는, 그 소재가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냐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위에서 <보기>를 해석할 때 생각했었죠? <디키 = 제도론>이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제도론 입장에서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 화가가 이 작품을 인정하고, 감상의 후보 자격을 부여해준 것도 아니니까요.

맥락주의를 못 잡았다면, 디키를 확인하고 이 선지의 내용이 제도/론과는 정말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 ‘화가’라는 워딩 하나 때문에 뇌피셜로 ‘그래도 주인이 화가였으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화가 꺼를 하면...’하고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정확히 돌아가서 제도론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팸플릿 정보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겠군. ③

→ <아버지의 낡은 신발 = 예술가 정신의 상징>이라는 것으로 보아, A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예술가 정신을 물려받았다는 얘기네요. 맥락/주의입니다. <텐 = 맥락주의>이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쪽이 맥락주의라고 판단이 안 된다면 텐을 먼저 보시고, 맥락주의라는 것을 아신 후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선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예술가 정신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앎 → 아버지의 낡은 신발과 연관됨 → 작가의 심리적 상태와 이념>을 연결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텐이 맥락/주의이든, 형식/주의이든 판단을 못합니다. 그 말은 <보기>를 해석할 때부터 ‘아버지의 신발’을 맥락주의랑 연결지을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석할 때도 안 되었다면 더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 프리드의 관점을 적용하면,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점에서 이 그림이 우수한 작품임을 언급할 수 있겠군. ④

→ <따뜻한 계열의 색 = 형식론 혹은 형식주의>겠네요. <프리드 = 형식주의>이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그림 속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겠군. ⑤

→ <낡고 바랜 신발 → 편안함과 여유>..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보고 감정을 느낀 것이기에 표현론이라고 할 수도 없구요. (물론 깊게 생각하면 어떤 것을 느꼈다는 점에서 인상/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다만은, 그건 실전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물어볼 게 인상/주의만 남긴 했지만요.) <프랑스 = 인상/주의>입니다. 인

상/주의는 예술은 따로 정의할 수 없고 비평가가 '인상'적으로 느꼈으면 모두 예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낡고 바랜 신발 → 바쁘고 조급한 현대인>이든, <낡고 바랜 신발 → 편안함과 여유>이든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24. 피카소의 「게르니카」에 대해 <보기>의 A는 ㉠의 관점, B는 ㉡의 관점에서 비평한 내용이다. (나)를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피카소, 「게르니카」

A: 1937년 히틀러가 바스크 산악 마을인 '게르니카'에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비극적 사건의 참상을, 울부짖는 말과 부러진 칼 등의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 세계에 고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 맥락/주의 비평입니다.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맥락'을 고려했는지 봅시다. '1937년'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있음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탄을 퍼부어 ~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맥락/주의만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전 세계에 고발 = 사회에 영향 미침>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구요. 물론 생각나지 않아도, 정확히 맥락/주의 부분으로 돌아가서 <전 세계에 고발 = 사회에 영향 미침>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B: 빨 달린 동물은 슬퍼 보이고, 아이는 양팔을 뻗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들이 나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는 듯하다. 그러나 빛이 보인다.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 인상/주의 비평입니다. 무엇을 느꼈든 상관 없습니다. 그냥 비평가가 느낀 그대로를 서술한 것이기에, 우리가 따로 생각할 거리가 없네요. <고통과 좌절감에서 희망을 갈구한다>고 생각한 것은 비평가의 생각일 뿐, 우리와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맥락을 고려했다고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비평가가 작품만 보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했을 뿐이니까요.

①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역사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겠군.
→ 맥락/주의이죠? <역사적 정보 = 맥락>입니다.

②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하였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겠군.
→ 이미 잡고 넘어온 정보입니다. 하지만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라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을리 없기에, 실전적으로 따지면 지문으로 돌아가서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찾기만 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 고발>한 것이 작품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맞으니까요.

③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려는 것이겠군.
→ <작가의 심리적 상태 = 맥락주의 = 인상주의X>입니다. <보기> 해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주의는 그저 비평가가 느낀 인상일 뿐입니다. 작가가 어떤 감정이었든, 당시 역사적 배경이 어떻든, 형식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비평에 우울, 고통, 좌절 등이 써 있다고 해서 낡이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럴듯한 선지이며, 낡인 분들은 평소에 국어를 풀 때도 뇌피셜로 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치그치 그럴 수 있지!'하고 말이죠.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④ B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의 주관적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겠군.
→ <비평가의 주관적 인상 = 인상주의>입니다. 위에서 다 설명했죠?

⑤ B에서 '희망을 갈구하는'이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반영된 것이겠군.
→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 = 인상주의>입니다.

25.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의 동음이의어인 것은?

- ① ㉠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前提)해야 한다.
- ② ㉡ :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時期)이다.
- ③ ㉢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 ④ ㉣ : 이 소설은 사실을 근거(根據)로 하여 쓰였다.
- ⑤ ㉤ : 청소년의 시각(視角)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자.

→ 어휘는 스스로!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국가,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 행정/주체>라네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니, 행정을 하는 주체라서 행정/주체인가 봅니다. 이러한 행정 주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 행정 규제>는 국회의 법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군요. 일단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니> 충분히 행정 / '규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행정/주체가 국민을 규제하니 행정/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는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납득을 해 봅시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에, 당연히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을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글의 주제를 잡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주제는 '행정'에 관련된 것일 듯 하네요.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행정 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 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 행정/기관>이라고 수식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나온 행정/주체와 크게 다를 게 없죠? 간단히 납득 하시고.. 이러한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을 = 행정/입법>이라고 하네요. 행정/기관이 입법 했으니까 행정/입법이겠죠? 뒷 문장에서, 이 문장의 앞부분에서도 입법은 '국회'가 한다고 쓰여있는데 갑자기 '행정'이 입법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이라는 행위에 대해 <국회 vs 행정>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법이 상위개념이고, 그 속에 국회와 행정 이 있는데,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공통점, 차이점을 찾기 위해 '비교/대조' 해주셔야 합니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드론, 첨단 기술,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규제가 행정/규제네요. 간단히 말해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행정/입법이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드론 등을 모두 외출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잘 독해하셨다면, <국회 = 일반적인 상황>, <행정입법 = 예외적인 상황>임이 잡혀야 합니다. 국회가 법을 바꾸는 것에 비해 행정/기관이 빠른 행정/규제를 위해 입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예외적인 상황은 항상 중요한 것 아니죠?

행정 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여기서의 <이러한 사항 = 예외>이죠? 위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2문단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항상 뒷문단의 마지막 부분과 역어서 읽어야 하는 것 아니죠? 유기적으로 독해해야 합니다. 앞 문단에서 다른 행정/입법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있네요. 하나하나 설명해줄 것을 기대하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또한, 행정입법이 상위개념이고 그 아래에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하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유형을 의식적으로 '비교/대조' 하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

<행정/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 = 국민을 제한하는 법률>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법률의 제정을 행정부에 맡길 수 있네요. 앞에서부터 계속 행정/입법을 다루고 있으니, 행정부의 입법행위는 당연히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명령이라고 한다.

<국회가 위임해서 제정된 행정입법 = 위임/명령>이네요. 국회가 위임을 명령했으니, 위임/명령인가 봅니다.

위임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어진다.

제정/주체는 법을 제정하는 주체겠죠? 그 주체는 당연히 '행정' 소속일 것이구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번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세부정보이기에 물어보거나 아래에 같은 정보가 반복되면, 그 때 올라오면 됩니다. 일단 핵심정보인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에 더 집중합시다.

이들은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두 국민에게 적용되니까, <입법예고, 공포 = 절차>를 거쳐야 하네요. 너무 당연합니다. 1문단에서도, 국민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에 법률을 근거로 했었죠? 마찬가지로 2문단에서도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입법을 예고하고, 공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정보로 보지 마시고, 납득을 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주면 '당연히'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죠.

위임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위임/명령은 <입법부 =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 = 입법>을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 위임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네요. 이것도 당연하죠. 위임/명령 자체가 행정/입법이고, 행정부가 입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입법부가 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정보로 보면 안 되고, 문장 자체를 앞에서 나온 정보랑 유기적으로 역어서 이해해야 해요. 해봤자 우리

가 아는 정보가 행정/입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저촉된다.

문장이 엄청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면 두세 번 읽어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세 번 읽었어요. 수식된 정의가 있으면, 빼내서 따로 이해해주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엮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쉬운 정보부터 잡고 갑시다. (S-V)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네요. 포괄적 위임이 뭐길래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지를 생각해야겠죠?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이 정확히 안 나뉘었나 봅니다. <특정한 행정/규제의 근거 법률 = 행정/규제를 위한 근거 법률이겠죠? 국민의 규제를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이 근거 법률이 <위임/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 위임/명령은 예외 상황에 행정부가 입법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위임/명령이 법을 제정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범위를 정하지 않았네요.> 즉, 근거 법률이 어떤 범위를 행정/주체한테 정해줘야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주체가 위임/명령 = 입법을 수행하는데, 법률이 그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포괄적 / 위임>이 되는 것이죠.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에, 포괄적으로 행정/주체가 법을 제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해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행정/주체가 입법할 수 있기에 삼권 분립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위임을 해줘야 정당화되니까요.

엄청나게 깊은 생각이 들어가야 하는 문장입니다. 저 정도 생각은 당연히 현장에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공돌이인 제가 한 생각은 <법률이 범위를 정해주지 않음 = 국회가 안 정해줌 =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 = 문제> 이 정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입법 자체가 예외라는 것이고, 앞 문장으로 미루어 봤을 때, 행정/입법은 국회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용의 변질 없이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독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법률 = 국회>라고 재진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주체가 국회의 위임없이 위임/명령 = 입법을 수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재진술을 해줬습니다. <재진술 = 이해 못했으면 이거 보고 이해해라 = 즉, 곧, 다시 말해, ~것이다. 등의 표시> 이런 표시가 있으면 꼭 앞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앞 문장 이해 못 했으면 이 문장으로 이해합니다.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 = 국회가 위임'한' 행정 규제 사항 = 이 사항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입법을 할 예정>, 이때 이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 = 앞 문장에서 나온 '특정한 행정 규제의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범위가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석을 했다면 이러한 재진술이 쉽게 쉽게 되어야 합니다. 앞 문장만 봤을 때는 못 이해했어도, 이 문장을 보고서는 결국 행정/입법도 어느 정도 <국회

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위임/근거/법률의 내용으로부터 행정/규제 사항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임/근거/법률이 행정/입법을 통한 행정/규제 사항보다 큰 개념이라는 거니까요.

쉽게 다시 정리해보면, 행정/규제 사항에 대해서 행정/주체가 입법을 할 때, 그 법의 내용을 위임/근거/법률로부터 대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앞 문장에 따르면, 행정/주체가 행정/입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국회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보니,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 행정/주체가 규제하는 것이 유리할수록>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 범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애초에 행정/입법 자체가 예외 상황이고, 더욱더 예외 상황으로 갈수록 국회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힘들기에 행정/주체가 그 일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행정/주체가 입법을 통해 규제해야 할 사항의 범위가 커지는 것입니다.

한편, 위임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은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신호라고 했죠? 추가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하세요. 지금까지는 위임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네요. 어찌보면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국회의 위임 근거 법률의 범위 안에서 놀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문장을 읽을 때,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납득해야 합니다. 행정/주체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만 행정/입법을 시행해야 하니까요.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 = 범위를 벗어남>이랑 같은 말인 건 기본적인거죠?

㉠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여기서의 <이러한 제한 = 위임 근거 법률의 범위>입니다. 제발 지시어는 계속 잡아주세요. 범위를 벗어나서 행정/입법을 통해 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효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3문단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에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告示),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의 일부였죠?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위임명령과의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사무 처리에 관한 행정/입법인가 보네요. 고시나 예규 등은 위에 나온 대통령령 등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뉜 정보이므로 물어보거나 한 번 더 나오면 올라오도록 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고 위임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임/명령이랑의 큰 차이점이 나왔네요. 위임/명령은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의 위임이 있어야 했지만,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사무 처리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네요. 당연히 <국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임이든, 절차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 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행정/규칙도 행정/규제 사항에 대해 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있네요. 당연히 문장에 써진 것처럼 예외입니다. 원래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입법이 아니니까요.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합니다. <법률의 위임>과 <절차>가 필요해지겠지?하고 말합니다.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명령으로는 ㉠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

역시 '위임'되네요. 다만, 그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제정 주체만 위임됩니다.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입법의 유형>과 같은 구체적인 범위의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은 하지만 제정 주체만 위임을 하고 입법 유형은 지정되지 않으면 <고시나 예규 = 행정/규칙>을 통해 입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임/명령보다 더 자유로운 경우인 것이죠.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은 위임명령과 달리, 입법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이런 경우의 행정/규칙 =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큰 사항에 대해 행정/규제를 해야 하는 경우의 행정/입법 = 위임/명령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절차>도 필요해질 거라고 예측했던 것과 달리, 여전히 절차는 안 거쳐도 되네요. 일반적인 행정/규칙 상황과 같습니다. 위임/명령에서의 행정/입법의 상황과도 같은 경우구요.

4문단

조례는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다.

조례가 나오네요. 긴장하고 앞에서 나온 <위임명령>과 <행정규칙>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잡기 위해 열심히 '비교/대조'해야 합니다. 조례는 '지방' 의회가 법을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네요. 여기서 지방의회는 행정/주체일 것이구요. 지방 의회가 지정하니까 당연히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의 사안에 대해 적용되겠죠? 이 정도는 쉽게 쉽게 납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정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 구별된다.

대놓고 차이점을 명시해줬네요. <위임명령, 행정규칙>은 국가,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 = 지방 의회라는 점에서 다르답니다.

조례도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야 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집중했다면, 이 부분에는 정보가 없어요. 행정/규제 자체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에 위임/명령과 행정/규칙의 예외적인 경우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했었죠? 조례도 그냥 마찬가지로일 뿐입니다.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다.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포괄적 위임을 보면서 '범위를 위임해주지 않았던 거였지?'하고 기억나야 합니다. 엄청 특이하네요. 어쨌든 위임/명령과의 차이점을 잡아야 합니다. 더 잘하는 친구들은 행정/규칙의 예외적인 경우랑도 차이점을 잡아주면 좋구요. 하지만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음 = 범위를 넘길 수 없음>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위임명령과 포괄적 위임의 부분은 다르고, 근거 법률의 해석에 대한 측면에서는 같은 자세를 취하네요.

조례는 입법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위임/명령과의 공통점이 또 나왔네요. 행정/규칙하고는 차이점이 되겠구요. 조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정/규칙의 예외적인 경우와 다르게 첨단 기술과 관련이 엄청 크다는 등의 서술이 안 나왔기에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입법의 경우이므로 특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죠.

어려운 지문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사실을 1문단에서 잡았다면 쉬워지는 지문입니다. 행정/규제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행정/입법은 규제를 위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정/규제를 위해 행정/입법을 해야 한다면, 기존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 법률에 근거할 때도, 정해진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26. 위급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
→ 크게 봐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 나뉘죠? '지방'이 있다는 사실로 풀어내면 되는 선지입니다. 물론 대통령, 총리 등이 있겠지만 저걸로 푸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실전적입니다.
- ②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 모두가 틀렸네요.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마지막에 읽었던 '조례'입니다. 이 정도는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해결 가능해야 합니다.
- ③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
→ 역시 모두가 틀렸습니다. 행정/입법 중에서도 행정/규칙은 국회의 위임 없이 행정/입법을 시행하죠? 행정/규칙 중에서도 첨단 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의 행정/규제에 관해서는 국회의 위임이 필요하지만요. 애초에 일반적인 행정/규칙은 행정/규제가 아니기에 상관 없습니다.
- ④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입법의 각 법령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끝까지 잡아내셨다면 쉽게 풀어낼 수 있겠죠?
- ⑤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 행정/입법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아주 쉽지만 아주 중요한 선지이죠. 행정/입법을 하는 이유 자체가 국회보다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런 문제는 주관식으로 미리 답을 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여기서의 <이러한 제한>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러한 제한을 왜 위반하면 안 되는지 먼저 생각한 후에 선지로 가서 빠르게 답만 체크해야 합니다. 이 문장의 <이러한 제한 = 법률의 위임 범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행정/규제의 사안에 대해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을 하게 되면, 행정/규제 자체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주체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한 위딩을 만들지는 못해도,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라는 생각은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위를 넘어서 효력이 없다.'라는 서술과 가장 근접한 선지를 골라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수업 때도 항상 이러한 추론 문제의 풀이는 꼭 그 지점의 근처에서 답이 나온다고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칼로릭 지문에서도 얘기했고, N제 수업을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 ① 그 위임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 실전적으로 풀어봅시다. <위임 근거 법률의 범위를 넘었다. = 법률의

범위를 넘었기에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입법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임/명령이 애초에 행정/규제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하구요. 정확하게 푼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답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1문단에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명령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는 것이고,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행정/규제를 해야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위를 넘어서 행정/규제를 하게 되면, 행정/주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근거로 국민을 규제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2문단의 중간에서 행정/주체가 국회가 행정/규제의 범위를 정해주지 않는 포괄적 위임을 받아서 행정/규제를 하는 경우,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결국 1문단에서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행정/입법이라도 국회의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고, 그 범위를 지키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죠. 그래서 행정/규칙의 일반적인 시행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도, 국회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사실만 이해하고 나면 사실이 지문은 아주 쉽게 풀립니다. 모든 행정/입법의 사항이 하나의 원리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다시 복습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 ② 그 위임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범위를 넘어서가 문제였지, 애초에 범위를 정해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포괄적 위임은 위임 근거 법률이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규제에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범위 자체도 부여받지 못한 행정/입법 행위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 ③ 그 위임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반영하기 위해서 위임/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하는 거였죠?

- ④ 그 위임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 위임명령이 권한을 위임한 것은 맞지만, 그 범위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⑤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애초에 구체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입법이므로.. 그냥 개소리입니다.

28.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7번의 2번 선지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 ②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 역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 경우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기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 ③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행정/규제는 분명히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제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예외적으로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규제는 위임/명령의 경우보다 예외적이고, 첨단 기술 등에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납득했었습니다. 예외 속 예외네요. 가장 어려운 경우죠.
- ④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
→ 역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므로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은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정해줘도 상관 없습니다. 자세한 유형은 행정/주체가 정해도 되는 것이죠.
- ⑤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 ④번 선지의 해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규제 사항에 대해 행정/규칙을 통한 행정/입법은 그 제정 주체만 위임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임/명령은 행정/규칙의 경우와 같이 완전 특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에서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행정/규칙의 경우와 비교하면, 행정/입법의 유형까지도 간섭을 받는 것이죠.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 인근 자연 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 <보기>는 항상 지문을 바탕으로 해야하죠? 현수막에 적용되는 행정/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행정/규제를 위한 행정/입법이 위임/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 조례인지 아래 회신을 통해 파악해야겠네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의 현수막을 설치하시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 대통령령인 것으로 보아 위임/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 따른 사항이므로 ㉡가 위임 근거 법률이 되겠네요. 위임/명령인 ㉢가 행정/규제를 하기 위해 위임 근거 법률인 ㉡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 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 ○○시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따르셔야 합니다.

위 법률이 ㉠이므로, ㉡에 의한다는 것으로 보아 ㉢도 위임 근거 법률의 영향을 받고 있군요. 따라서 행정/규칙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간섭을 받으니까요. ㉣를 보니 '지방' 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아 조례인 것 같네요.

위임/명령과 조례의 공통점, 차이점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겠죠? 물어볼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 ① ㉠의 제3조의 내용에서 ㉡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 ㉢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대강의 내용을 알 수 있죠. 구체적 내용이 모두 ㉡에 있다고 하면, 굳이 ㉢를 통해서 행정/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로 하면 되지.
- ② ㉡의 제5조는 ㉠의 제16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
→ ㉡는 당연히 위임 근거 법률인 ㉡로부터 법률 제정 범위가 정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16조가 아니라 제3조의 영향을 받은 범위를 정해졌겠죠? 그럴듯하고, 아무 생각없이 예민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틀릴 문제입니다. 꼭 선지 판단을 할 때는 예민하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살펴주세요.

③ ㉠은 ㉡와 달리 입법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

→ ㉠은 위임/명령이고 ㉡는 조례이죠? 둘 다 입법예고, 공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둘 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이기 때문이죠. 행정/규칙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구요.

④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

→ 먼저 실전적으로 풀어봅시다. ㉠과 ㉡ 모두 위임 근거 법률에 사용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므로 같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분석하면서 이 선지의 논리 관계를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과 ㉡ 모두 위임 근거 법률이 되는 ㉢의 워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해석하면 안 됩니다.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안 되죠. 즉, ㉢에 쓰인 어휘의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 제3조이든, ㉢의 제16조이든 결국 ㉢에 속해있고, ㉢에서의 '광고물'의 의미는 달라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의 영향을 받는 ㉠과 ㉡는 모두 '광고물'의 의미를 다르게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과 ㉡에 쓰인 '광고물'의 의미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 ㉡는 서로 다른 조항의 영향을 받지만, 결국 제3조와 제16조 모두 ㉢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⑤ ㉠을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

→ ㉠과 ㉡의 위치를 바꾸면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은 대통령령이자, 행정부의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는 조례라서 지방만 영향을 받겠네요.

애초에 1문단에서 행정/주체를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로 나눴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위임명령과 행정규칙은 국가가,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한다는 것이죠.

정말정말 어려운 지문이고, 배워갈 점이 너무나도 많은 지문입니다.

이 지문의 포인트는 결국, 1문단에 나온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입니다.

애초에 근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인 행정 입법을 통한 행정 규제의 경우는 간접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영향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저 하나의 논리가 지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 후에, 다시 지문을 분석하시면 평가원의 치밀한 논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철저히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나타내기
- ② ㉡ : 드러내어
- ③ ㉢ : 헤아릴
- ④ ㉣ : 마주하기
- ⑤ ㉤ : 달라진다

→ 어휘는 스스로!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왈,

“나는 이 동네 사람이러니,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삼백 석을 지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 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만할 길이 전혀 없어 내 몸을 팔려 하니 어떠하뇨?”

심청전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심청전 얘기가 맞네요. 공양미 삼백 석이 필요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겠네요.

줄거리는 아니까 주인공과 등장인물 간에 일어나는 사건과 정서에만 주목하면 됩니다.

뱃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하며 허락하고, 즉시 쌀 삼백 석을 몽운사로 보내고,

“금년 삼월 십오 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거늘 심청이 부친께,

“공양미 삼백 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는 근심치 마옵소서.”

뱃사람들이 공양미를 보냈네요. 심봉사 눈이 떠질리가 없죠?

심봉사 깜짝 놀라,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봉사가 **깜짝 놀랐네요**. 정서 체크해줘야 합니다. 삼백 석을 어디서 냈는지 모르는 눈치네요. 줄거리가 쉬울수록 기본적인 것들에 더 집중해줘야 합니다.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길,

심청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심봉사와 심청이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이니, 집중해줘야 합니다. 집중해서 읽을 부분과 읽지 않을 부분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분명히 흘려서 읽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승상댁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공양미 삼백 석을 주선할 길이 전혀 없어 이 사연을 노부인에게 여쭙즉 쌀 삼백 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나이다.”

어떤 거짓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양미 삼백 석을 얻은 경로에 대해 거짓말을 하네요. 몸을 팔아서 얻은 게 아니라 수양딸이 되어서 삼백 석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니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던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댁 수양딸로 팔린 거야 관계하랴. 언제 가느냐?”

“다음 달 보름에 데려간다 하더이다.”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

심봉사는 다행히도 좋게 생각하네요. 여기서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 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으리라.>라고 써진 문장은 세부정보기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청이와 심 봉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주목하면 되지, 장승상댁 노부인의 아들이 벼슬길에 나아간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고전소설 읽을 때는 주목할 부분과 주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나눠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심봉사 물색 모르고 이 말 반겨 듣고>와 같은 문장이 중요합니다. 반겼다잖아요. 심청이의 거짓말에 대한 심 봉사의 정서이므로 주의 깊게 읽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나서 십오 세에 죽을 일이 정신이 아득하고 일에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금** 생각하되,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으로 지냈다네요. 심청이의 정서입니다. 아버지 못 보고 죽을 일이 막막한가 보네요.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에 대한 심청이와 심 봉사의 정서에 집중합시다. 매우 걱정하고 있네요. 하지만 다시 다짐하고 있습니다.

‘엷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

이미 일어난 일하기에 결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흘러 읽지 말고 심청이의 심정을 잡으세요.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

‘**이러다간 안 되겠다. 내가 살았을 제 부친 의복 빨래나 하리라.**’ 하고 춘추 의복 상침 겹것, 하절 의복 한삼 고이 박아 지어 들여 놓고, 동절 의복 솜을 넣어 보에 짜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갓끈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 두고, 행선 날을 세어 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효녀라도 마음이 온전할쏘냐.

이런 부분을 정말 빠르게 읽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를 챙기는 심청이의 모습> 정도만 잡으면 <춘추 의복 ~ 동절 ~ 청목 ~ 망건 ~ 행선> 따위는 그냥 넘겨도 됩니다. 물어보면 돌아오면 됩니다. 절대로 저런 걸 널 리가 없지만요. 정보 자체를 내는 게 아니라 ‘심청이의 행동을 묘사하여~ 구체적으로~’ 이런 선지를 내겠죠. 화작과 같습니다. 세부정보는 세부정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정보를 어떤식으로 제시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심청이가 한숨을 쉬는 부분만 강하게 읽으면 됩니다. 적절한 강약조절과 속도 조절이 실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빨라진 속도를 늦추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고, 느려진 속도를 빠르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넘기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꿰어 드니 가슴이 답답하고 두 눈이 침침, 정신이 아득하여 하염없는 울음이 간장으로조차 솟아나니, 부친이 꺾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 보고 손발도 만져 본다.

심 봉사의 신발을 지으려는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 ~ 부친이 ~ 손발도 만져 본다.>는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심청이가 아버지를 두고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슬퍼한다는 핵심정보만 잡으면 돼요.

(중략)

황후 반기시사 가까이 입시하라 하시니 상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새 심봉사 아무란 줄 모르고 겁을 내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심 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래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삼 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 가물하여 물으시길,

“처자 있으신가?”

‘황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네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집중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심 봉사와 관련 있는 인물인가 봅니다. 심 봉사가 <겁>을 낸다는 사실은 심 봉사의 정서기에 집중해줘야 합니다.

황후가 ‘부친의 얼굴’을 떠올리려 하는 것으로 보아 맥락상 황후는 심청이가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까지 읽지 않아도 심청전을 알면 대충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연분에 상처하옵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 있삽더니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냥젖을 얻어먹여 근근 길러 내어 점점 자라나니 효행이 출천하여 옛사람을 앞서더니 요망한 중이 와서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오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니 신의 여식이 듣고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하고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들에게 삼백 석에 몸을 팔아서 인당수에 제물이 되었으니 그때 십오 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 주옵소서.”

[A]

심봉사가 슬프다는 사실은 당연히 체크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무 연분에 ~ 동냥젖을 얻어먹여>까지는 ‘가난’이라는 키워드로 통 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심청이가 황후가 되어서 심 봉사와 만난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망한 중 ~ 인당수에 제물>까지 역시도 그냥 (중략) 전의 사건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려 할 필요도 없고 천천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심 봉사의 원통함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황후와 만나서 자신의 원통함을 털어 놓는 사건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이니깐요.

황후 들으시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쑤를 자세히 들으심에 정녕 부친인 줄은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쑤이 그치기를 기다리라마는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 말쑤를 마치자 황후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부친을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에요.”

심청이 역시 슬퍼합니다. 심 봉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뛰어 내려와서 자신이 심청이임을 밝히네요.

심봉사 깜짝 놀라,

“이게 웬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에 두 눈에 딱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 맹인들이 심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에 눈들이 ‘희번덕, 짹짹’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더니, 못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개벽이라.

심 봉사의 눈이 드디어 뜨였습니다. ‘눈이 떠짐’이라는 사건이 핵심정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딱지 떨어지는 ~ 희번덕 ~ 천지개벽이라.>는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심 봉사 눈이 떠지면서 주변에 있는 맹인들의 눈이 모두 떠졌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낸다고 해도, 청각적으로 묘사되었다느니, 비유를 사용했다느니.. 어떻게 세부정보를 표현했는지에 대해서만 나올 것입니다. 절대로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은지 아닌지 선지에서 물어볼리가 없습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 속에서, ㉠으로 감추려고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 뱃사람에게 팔려가는 사건이 거짓말로 감추려고 했던 사건이었죠? 당연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심청’이 ㉠을 결심할 때 드러나는 생각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 거짓말을 했을 때 드러나는 생각으로 움직여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지문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존재할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선지만 보고 ‘음...’ 하고 고민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라고 정확히 ㉠ 앞에 쓰여 있습니다.

③ ㉠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심봉사’의 대화에서, ㉠에 등장하는 인물이 ‘심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에 등장하는 인물은 ‘장승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말 전 후를 살펴서 심봉사가 낯설어 하는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부인은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라고 정확히 써 있네요. 그 뒤에 있는 삼 형제에 대한 얘기도 아는 걸로 봐서 절대로 낯선 사람일 수가 없겠네요.

④ ‘심봉사’가 ㉠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이 ‘심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논란이 되었던 선지입니다. 거짓말에 대한 심 봉사의 대답에 <이상하다만은>이라고 써 있어서 의심한 것 아니냐? 하고 의의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말은 맥락상 장승상댁의 수양딸로 심청이가 팔려간 것이 <도리에 어긋난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팔려감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피셜을 넣기 보다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 판단해주세요. 분명히 심봉사의 발화 전에 <물색 모르고 이 말 듣고 반겨>라고도 써 있고, 그 후에 <어, 그 일 매우 잘 되었다.>라고도 써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선지는 절대로 뇌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판단해야죠.

⑤ '심봉사'가 ㉠을 듣고 한 말에서, ㉠이 '심청'과 '심봉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됨을 알 수 있다.

→ 애초에 심청과 심 봉사는 갈등이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갈등을 해소한다니요. 이런 부분을 묻는 선지는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꼭 연계기출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3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심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도 애매하긴 하지만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완벽한 개소리입니다. <상궁이 명을 받아 심봉사의 손을 끌어>, <걸음을 못 이기어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라고 구체적으로 써 준 것을 통해 '묘사'라고 판단해도 되지만, 실전에서는 저런 세부정보의 표현보다, <심봉사 - 겁> · <황후 - 반김, 의심>이라는 정서만 잡고 풀면 됩니다.

② '심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황후'가 '심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 <처자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했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 봉사가 아버지임을 알아냈으니, 충분히 적절한 선지입니다.

③ '심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심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나고 있다.

→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 부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다. 애초에 (중략) 이전이든, 이후든 핵심과 매우 먼 이야기예요. 돌아간다는 생각도 없이 걸려야 합니다. 확실히 틀렸어요.

④ '심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풀어내고 있다.

→ 심 봉사는 심청이의 거짓말에 속았었죠?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별하게 된 과정은 풀어냈지만, 심 봉사의 강요는 아니었죠.

⑤ '심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심봉사'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딸임을 밝힘으로써 상봉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 심 봉사의 얘기가 끝나기 전이 아니라 끝난 후에 딸임을 밝혔죠?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ㄹㅇ 쪼잔하게 물어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평가원은 분명히 '세세한 내용일치'를 통해 여러분을 헛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후가 자신이 심청이임을 밝히는 것은 (중략) 이후의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A] 마지막 부분 가서 빠르게 판단은 할 수 있어야죠. 선지 붙들고 시간낭비 하는 게 아니라요.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심청이 효를 실천하기 위해 자기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그리고 심청의 자기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개안(開眼)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모순적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효를 실천했더니 심청이는 심 봉사 옆에 없고, 공양미 삼백 석을 갖다 바쳤으면 바로 눈을 떠야 하는데 황후가 된 심청이와 만났을 때서야 눈이 떠졌으니까요.

①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도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함을 알 수 있군.

→ 이별을 근심하긴 했지만, <다시금 생각> 하면서 결심했었죠?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 놓은 화살이다.>하고 말입니다.

② 심청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며 '내가 살았을 제' 할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며 이를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 = 심 봉사가 혼자 남게 되는 것>을 걱정해서 살아 있을 때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상 틀리지 않아요.

③ 심청이 '어찌 아버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선지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한 것은 맞지만, '어찌 아니 눈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를 말한 것으로부터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다. 심청이의 발언에 따르면 선지의 뒷부분은 효행을 적극적으로 하려 하는 심청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겠죠. 문학에서는 나름 어려운 선지가 맞지만,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P → Q 선지 분석을 해 봤다면 쉽게 푸셨을 겁니다. 어려워봤자 이런 유형의 선지거나, 세세한 사실관계 판단밖에 없습니다. 풀다가 막히면 절대 풀지 마시고, 그냥 '확인하기 ㄹㅇ 귀찮게 냈네'라고만 생각하세요.

④ 심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심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 = 심청이가 죽었음에도 심 봉사가 눈을 바로 뜨지 못한 것>이죠? 그에 대해 심 봉사가 원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책도 충분히 인정해줄 수 있죠.

⑤ 심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에 두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보아, 모순적 상황으로 인한 결말의 지연이 극적인 효과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보기>에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고 나와 있네요. 심청이를 만나서야 눈이 떠짐으로써, 모순적 상황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등이 있다.

과학기술 지문의 원칙을 기억합시다. 앞에서 쏟아지는 정보량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고, 그것과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들을 엮어가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병원체가 글의 주제임을 알 수 있네요. 병원체를 <세균, 진균, 바이러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차이점이 있을지 '비교/대조'에 집중하며 읽어봅시다.

생명체의 기본 구조에 속하는 세포막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중층이다.

갑자기 세포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세포막과 병원체가 어떤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텍스트만 따라가서는 뚫어낼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세포막이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지, 이중층인지 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랫부분을 읽을 때 이 문장의 정보와 연결지어지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지질이나 이중층 얘기가 나온다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겠죠.

세균과 진균은 일반적으로 세포막 바깥 부분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은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고 부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세균과 진균>을 하나의 범주로 묶고 있습니다. 둘 다 '균'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이러한 '균'들은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바이러스>는 세포막 대신 <캡시드라는 = 단백질>이 있네요. 천천히 읽으면서 정보를 잡아내야 합니다. 정보가 많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음 문단, 다다음 문단에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쓰일 도구들이니까요. <병원체>가 상위개념이고, <세균과 진균 vs 바이러스>로 나뉜 것들이 하위개념입니다. 하위개념 간의 '비교/대조'는 수업 때 수십 번 얘기했죠?

별개로, 세포/벽은 세포/벽이니까 세포의 가장 바깥쪽에 있고, 세포/막은 세포/막이니까 세포를 바로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한 누가 봐도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구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니까 옆에 간단히 그리든,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꼭 붙잡고 갑시다. 상상할 수 있는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든 독해에 도움이 돼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캡시드 외부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에 따라 캡시드 바깥쪽이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 표시 해놓은 부분을 보자마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합니다. 위에서 세포에 대해 설명할 때도, 세포막이 지질이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왔었죠? 세포막은 <세균과 진균>에 존재하고,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은 바이러스에 있기에, '지질'이라는 성분의 존재를

<세포막: 세균과 진균, 피막: 바이러스>라고 공통점을 잡아줘야 합니다.

한편 진균과 일부 세균은 다른 병원체에 비해 건조, 열, 화학 물질에 저항성이 강한 포자를 만든다.

'한편'은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수업 때 계속 강조했었죠? 병원체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지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는데, 이 문장은 '포자'라는 다소 뜬금없는 정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진균과 일부 세균>이 <포자>를 만든다는 것으로 보아 <바이러스와의 차이점>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2문단

생활 환경에서 병원체의 수를 억제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화학 물질을 '항(抗)미생물 화학제'라 한다.

다음 문단을 읽을 때는 항상 앞문단의 정보와 강하게 이어줘야 합니다. 평가원이 '대놓고 하는 재진술'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병원체>는 글의 주제였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항/미생물 화학제>네요. 여기서의 미생물은 당연히 병원체일 것이구요.

항미생물 화학제는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 작용을 일으키므로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다.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 = 지질>입니다. '뇌피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평가원은 절대로 앞에서 '지질'이라는 공통 성분을 제시해 놓고, 새로운 정보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물론, <공통으로 갖는 구조 = 세균과 진균은 세포막, 바이러스는 캡시드>겠죠. 하지만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피막이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해줬기 때문에, 평가원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해서 논리를 만들어갈지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은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동일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그 살균 효과는 다를 수 있다.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병원체의 구조와 성분이 아예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냥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고 서술해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3문단

항미생물 화학제 중 ㉠ 멸균제는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

구체적인 항미생물 화학제의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의 핵심정보를 구체화 시켜주고 있는거죠. 다시 말해서, <항미생물 화학제>의 하위개념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위개념 사이의 ‘비교/대조!’ 지겹겠지만 까먹지 마세요.

<멸/균/제>입니다. 균을 멸종시키는 건가 보네요. 이게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병원체에 포자도 포함되나 봅니다. <포자를 포함한 = 모든 병원체>이니깐요. 말 그대로 모든 병원체를 멸종시켜서 <멸/균/제>인가 봅니다.

㉡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화합물로 병원, 공공시설, 가정의 방역에 사용된다.

멸균제랑 비교.. 이제는 할 수 있죠? 멸균제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체를 없앴다면,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키네요. (포자 자체가 저항성이 강하기에 그런가보다! 하는 납득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염방지제 중 독성이 약해 사람의 피부나 상처 소독에도 사용이 가능한 항미생물 화학제를 ㉢ 소독제라 한다.

감염방지제 중에 소독제가 있네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염방지제가 상위개념이고, 소독제가 하위개념이니깐요. 소독제도 감염방지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독제도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죽일 수 있겠네요. 다만 그 독성이 좀 더 약할 뿐입니다.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독제라 하더라도 사람의 세포를 죽일 수 있으므로, 눈이나 호흡기 등의 점막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지질’이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소독제가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점막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소독제는 기본적으로 지질을 파괴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감염방지제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구요.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와 같은 인과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있기 때문에’라고 쓰면 편안히 해석하면서, ‘있어’라고 쓰면 상대적으로 그냥 흘리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에 대한 최대의 방역 효과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류별 사용법을 지켜야 한다.

잘 사용해야 한답니다. 앞 문단에서 항미생물 화학제라도 살균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이미 얘기했었죠? 같은 맥락의 서술입니다.

4문단

항미생물 화학제의 작용기제는 크게 병원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과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두 기제가 함께 작용한다.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를 어떻게 사멸시키는가>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네요. 글의 주제인 병원체와 항미생물 화학제라는 핵심정보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위에서 읽은 병원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지식이 ‘활용’되는 이 문단의 정보들을 뚫어나가면 됩니다.

어쨌든,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를 사멸시키는 방식은 <표면을 공격>과 <내부 공격>으로 나뉘네요. 여기서, 표면과 내부를 볼 때, <표면 = 세포벽 혹은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 <내부 = 세포막 혹은 캡시드>가 떠올라야 합니다. 아니, 떠오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1문단으로 돌아가서 표면과 내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야 해요. 병원체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니깐요. 이제 우리는 항미생물 화학제가 어떻게 표면과 내부를 공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알코올 화합물은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병원성 세균에서는 세포벽을 약화시킨다.

<고농도 에탄올 등의 = 알코올 화합물>이 <세포막의 기본 성분인 = 지질>을 용해시킨다네요. 어떤 거를 정의할 때 예시를 하나만 들어주면 그 예시는 꼭 잡고 가야 한다고 했죠? 셀룰로스나 같은 섬유소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 말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불친절할 수 있는데, 맥락상 알코올 화합물을 항미생물 화학제의 일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문에 나온 개념 중에 병원체를 파괴시키는 것은 항미생물 화학제밖에 없으니깐요. 세포막과 세포벽을 모두 공격하는 것으로 보아 세균과 진균에게 영향을 미치겠네요.

여기서 우리는 <지질을 용해 = 세포막 = **표면**>로 읽어야 하고, <세포벽을 약화 = **표면**>이라고 독해해야 합니다. 바로 앞 문장에서 읽은 이 문단의 핵심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내려와야 하죠. 여기서 세포벽이 더 바깥쪽 표면이라는 것까지 알면 더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 화합물은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보다 지질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에서 방역 효과가 크다.

세균과 진균에만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이 지질/피막이겠죠?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크다는 정보는 절대로 외워야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위에서 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용해시킨다는 즉, 공격한다는 정보를 보셨다면 그걸 그대로 응용해서 세포막과 같이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피막도 쉽게 공격할 수 있다고 납득해야 합니다. ‘지질로 이루어진 세포막을 공격? 그럼 지질 피막도 쉽게 공격할 수 있겠네!’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항미생물 화학제만으로도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가 있다.

지질 피막이 감염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지질 피막을 용해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여기에 나오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항미생물 화학제 = 알코올 화합물>일테구요. 같은 범주에 속하는 정보들을 계속 재진술 해주며 읽어야 비교/대조도 쉽고, 정보 처리도 수월합니다.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양한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하이포염소산 소듐 등의 산화제가 널리 사용된다.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에 상관없이, ~에 관계없이는 '항상' 중요합니다. 한편, 새로운 항미생물 화학제가 제시된 것 같네요. <하이포염소산 소듐 = 산화제>입니다. 위에 나온 알코올 화합물과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아겠네요. 또한 여전히 이 문단의 핵심인, <표면과 내부에 대한 공격>을 찾아가며 읽어야 합니다.

병원성 바이러스의 방역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바이러스를 파괴하거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잃게 한다.

산화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표면 구조를 이루는 = 캡시드>를 손상시킨다네요! 기본적으로 캡시드가 바이러스의 바깥쪽을 표면을 구성하는 성분이었죠? 어쨌든 캡시드를 공격하면 당연히 바이러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깊게 읽어봅시다. 알코올 화합물이나 산화제나 모두 2문단에 나오는 항미생물 화학제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항미생물 화학제가 상위개념이기 때문이죠. 2문단에 서술된 <다양한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화학작용을 일으킴>이라는 정보를 충족합니다.

알코올 화합물은 <세균과 진균이라는 '균'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인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인 지질을 용해>시킴으로써 병원체를 사멸시키고, 산화제는 <바이러스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인 캡시드를 구성하는 성분을 손상>시킵니다. 행정입법 지문에서 <행정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정보를 유기적으로 끌고 내려오면 정보 처리가 매우 쉬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전에서 무조건 해내야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실전에서 무언가를 구성하는 상위 개념이 보이면 그 상위 개념의 특성이 하위 개념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상위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설명을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남기고, 다음 문단의 정보들에 적용하려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 연습이 결국 '근본적인 독해력'이 만들 거니까요.

5문단

병원체의 표면에 생긴 약간의 손상이 병원체를 사멸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더라도, 항미생물 화학제가 내부로 침투하면 살균 효과가 증가한다.

병원체의 표면에 대한 공격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내부로 침투하면 되니까요. 앞에서부터 표면과 내부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면서 끌고 왔는데, 드디어 내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킬화제와 산화제는 병원체의 내부로 침투하면 필수적인 물질 대사를 정지시킨다.

알킬화제와 산화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알킬화제는 처음 보는 정보네요? 그에 반해 산화제는 앞에서도 나왔던 정보입니다. 어쨌든 내부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글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은 알킬화제가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면 단백질을 변성시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핵산의 염기에 결합시키면 핵산을 비정상 구조로 변화시켜 유전자 복제와 발현을 교란한다.

<글루타르 알데하이드와 같은 = 알킬화제>, 너무 많이 했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킬'화제니까 '알킬' 작용기를 단백질에 결합시키는가 봅니다. 결합시키는 행위 자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산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백질이 변성되고, 핵산도 변화되어 병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만약 물어보면 이 부분으로만 돌아올 수 있으면 됩니다. 이런 정보는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앞부분에서 어떤 정보를 이어야 납득하며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단백질'은 알코올 화합물의 공격 방식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지문에서 F와 S가 일부분 비슷한 정보가 반복되었듯이 말이죠. 하지만 실전에서 무리라고 생각되기에 괄호치겠습니다.)

산화제인 하이포염소산 소듐은 병원체 내에서 불특정한 단백질을 산화시켜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들의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병원체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

산화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산화제가 하이포염소산 소듐이라는 사실은, 외우지는 못해도 앞에서 한 번 강하게 집중해줬던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어렵듯이 '그랬었지'라는 정도의 납득은 가능해야 해요. 이러한 산화제 역시 <단백질>에 대한 공격을 통해 병원체를 사멸시킵니다. 알킬화제나 산화제 모두 단백질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 병원체를 사멸시키네요. 공통점 꼭 잡고 갑시다. 바로 앞 문장에 나오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34.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이런 문제는 핵심에서 벗어나는 선지를 골라야 한다고 6평 이후로 N제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① 병원성 세균은 어떤 작용기제로 사람을 감염시킬까?

→ 사람을 감염?? 핵심과 너무나도 벗어납니다.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키는 기제가 핵심이지, 병원성 세균이 사람을 어떻게 감염시키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핵심이라 벗어났기에 답입니다.

② 알코올 화합물은 병원성 세균의 살균에 효과가 있을까?

→ ...?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찾으러 지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지', 혹은 '핵심에서 안 벗어나네'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③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1문단부터 나온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④ 병원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사용되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을까?

→ 멸균제, 감염방지제, 소독제가 나왔었죠?

⑤ 항미생물 화학제가 병원체에 대해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 정말정말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문 해설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미생물 화학제는 <병원체가 공통으로 갖는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 이거를 지문으로 돌아가서 '광범위하게 살균 효과를 내나???' 하고 찾아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시간낭비에요. 제발 핵심정보가 무엇인지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35. 밑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농도 에탄올은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방역 효과가 있다.

→ <고농도 에탄올 = 알코올 화합물>이었죠? 이 선지는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애초에 알코올 화합물이 <세포막의 지질 공격>, 따라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 공격>을 쉽게 납득했었으니까요.

다만,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해도 되고, 그냥 '고농도 에탄올'의 부분으로 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찾지 않고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연습해야겠지만요.

② 하이포염소산 소독은 병원체의 내부가 아니라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킨다.

→ <하이포염소산 소독 = 산화제>죠? 이걸 두 번이나 나왔기에 기억해 줘야 합니다. 표면과 내부를 설명할 때 두 번 다 나왔으니까요. <내부가 아니라>가 틀렸습니다. 내부 부분을 읽을 때 알킬화제나 산화제 모두 단백질을 공격한다는 공통점을 잡았었으니까요. 실전에서는 표면의 단백질을 손상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살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의 단백질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다만 지금은 분석하는 과정이니, 한 번 살펴봅시다. 산화제는 표면의 '캡시드'를 공격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캡시드는 단백질이기에 표면의 단백질을 공격하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 선지와 별개로, 1문단에서 <캡시드라고 부르는 = 단백질>을 잡았으면 다음 부분들을 읽으면서 모든 '캡시드'를 '단백질'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그렇게 읽었으니까요. 지문 해설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써 놓지 않았지만, 다시 복습을 하고 연습을 할 때는 꼭 캡시드를 단백질로 읽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③ 진균의 포자는 바이러스에 비해서 화학 물질에 대한 저항성이 더 강하다.

→ 포자는 다른 병원체보다 강한 친구였죠? 1문단의 추가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문단의 핵심에서 벗어난 정보는 내용일치 문제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④ 알킬화제는 병원체 내 핵산의 염기에 알킬 작용기를 결합시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

→ 아마 이 문제를 풀 때는 알킬화제가 내부를 공격하는 건 알아도, 핵산 어찌고 저찌고는 기억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알킬 작용기를 출제하지 않고, 핵산을 출제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탄수화물 지문에서 아세트산이 체지방을 합성한다는 부분을 출제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냥 간단히 눈을 알킬화제로 돌려서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있는지만 찾으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전적인 태도를 길러야 해요.

⑤ 산화제가 다양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은 그 산화제가 바이러스의 공통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성분들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 이 선지는 절대로 산화제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항미생물 화학제의 특성을 물어본 것이죠. 즉, 상위개념의 특성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4번의 ⑥번 선지에서도 나왔죠?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은 멸균제, ㉡은 감염방지제, ㉢은 소독제입니다. 소독제가 감염방지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고, 멸균제는 모든 병원체를 사멸, 감염방지제는 포자를 제외한 병원체를 사멸시킨다는 차이점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과 ㉡은 모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진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

→ ㉠은 포자를 사멸시킬 수 있지만 ㉡은 안 되죠? 그냥 차이점만 잡으면 되는 아주 쉬운 선지입니다.

② ㉠과 ㉢은 모두, 생활 환경의 방역뿐 아니라 사람의 상처 소독에 적용 가능하다.

→ ㉢은 독성이 약해서 사람의 상처 소독에 이용해도 되지만 ㉠은 너무 세서 안 됩니다. 감염방지제 중에서 약한 게 소독제고, 그러기에 상처의 소독에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감염방지제보다 강력한 ㉠은 절대로 상처의 소독에 사용할 수 없죠. 저항성이 더 강한 포자까지 멸균해버리니까요.

③ ㉡과 ㉢은 모두,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납득한 상태로 '당연하지!'하고 풀었어야 해요.

④ ㉠은 ㉡과 달리,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는 사멸시킬 수 없다.
 → ㉠, ㉡ 둘 다 <세포막이 있는 병원성 세균 = 세균과 진균>을 사멸시킬 수 있었죠? 포자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니까요. 또한 <피막이 있는 병원성 바이러스 = 피막 지질이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세균, 진균, 바이러스 모두 포자가 아니니까요.

⑤ ㉢은 ㉣과 달리, 인체에 해로우므로 사람의 점막에 직접 닿아서는 안 된다.
 → 정말 그럴듯한 선지입니다. 하지만 소독제 조차도 <사람의 점막 = 지질>에 닿아서는 안 됐었죠? 따라서 ㉢, ㉣ 모두 사람의 점막에 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점막을 사람의 상처로 문질러서 읽고 헛갈린 학생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정말 쉬운 선지임에도, 실전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헛갈릴 수 있으니 꼭 선지의 단어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37. <보기>는 읽글을 읽은 학생이 '가상의 실험 결과'를 보고 추론한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가상의 실험 결과

항미생물 화학제로 사용되는 알코올 화합물 A를 변형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알코올 화합물은 표면을 공격하는 기제를 설명할 때 나온 항미생물 화학제였죠?

[결과 1] A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약화시켜 B를 얻었다.
 →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켰으면, 세포막의 공격과 지질 피막의 공격 기능이 약화되었겠네요.

[결과 2]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C를 얻었다.
 →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을 강화시켰으면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성이 강화되었겠네요.

[결과 3]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켜 D를 얻었다.
 → B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 강화했으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좀 약해도,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잘 공격하겠네요. 이렇게 <보기는 지문을 바탕으로> 읽어줘야 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적용해야 해요.

○ 학생의 추론: 화합물들의 방역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해 보면, [가]고 추론할 수 있어.
 (단, 지질 손상 기능과 캡시드 손상 기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화합물 A, B, C, D의 비교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① B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작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 B는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약화되었던 알코올 화합물이죠? 따라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갑자기 왜 나올까요? 이런 부분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인체 = 점막 = 지질>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이

약화된 B는 인간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높겠네요. 인간과 지질을 얼마나 빨리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② C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 C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화된 알코올 화합물이죠? 따라서 캡시드를 둘러싸고 있는 지질 피막이 없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질에 대한 부분이 똑같으니,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달라진 게 없을 거구요.

③ C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 C는 캡시드 강화, B는 지질 약화였죠? 따라서 지질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 지질 피막에 대한 공격과 캡시드에 대한 공격력이 C가 세므로 방역 효과가 세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B는 지질 약화였기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더욱 강합니다. 따라서 B와 C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같다는 선지의 진술은 틀렸네요.

④ D는 A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높다.
 → D는 지질 약화, 캡시드 강화였죠? 따라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가 있으면,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은 상관이 없으니 캡시드가 강화된 D가 A보다 방역 효과가 좋은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지질 약화이므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높겠죠.

⑤ D는 B에 비해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효과는 크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같다.
 → D와 B의 차이는 캡시드밖에 없습니다. 둘 다 캡시드가 강화된 알코올 화합물이니까요. 따라서 지질 피막이 없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D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겠네요. D는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이 강화되었으니까요. 지질에 대한 부분은 같으므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오랜만에 독서 + 문학 유형이 출제되었네요. 그냥 <보기>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됩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나뉘는가 봅시다. 글의 주제는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입니다.

1. 자기 내면을 대상(외부세계)에 투영
2. 외부세계를 내면으로 수용
3. 내면과 외부 세계의 대비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양상은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 파악>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문단의 핵심정보가 되겠네요.

- 1 & 2. 내면과 외부세계가 친밀해짐.
3. 친화적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소원해질 수도 있음.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놈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 어리고 하얗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산수는 당연히 자연이겠죠? 바위 아래 뛰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뛰집이 뭔지 모르겠어요.'해도 되지만, 이제는 초가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모른다면 그냥 자연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모른 놈들이 '웃는다 한다마는', 내 분인가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웃는 것은 비웃음일 가능성이 높겠죠. 화자에게 있어 부정적인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놈들은 모른다잖아요. 그리고 '어리다'가 '어리석다'라는 건 당연히 아셔야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만흥이라는 시 자체를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고3 수험생이라면 말이죠.

어쨌든 <자연에 산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리밥 풋는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굿 몫의 슬궤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보리밥 = 자연>을 잘 먹고 바위 끝 물가에서 논다고 합니다. <바위 = 자연>, <물가 = 자연>으로 그냥 통 쳐서 읽으면 됩니다. 그냥 자연에서 재밌게 놀고 있네요. 그 남은 녀남은 일이야 부를 줄이 있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부를 줄이 '이시라'하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나쁜 녀나쁜일>은 자연에 비해 딱히 중요한 건 아닌듯해 보입니다.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씀도 우움도 아녀도 뜰내 도하호노라 <제3수>

잔 들고 <뵈 = 산 = 자연>을 바라보니 반갑다네요. 정서입니다. 화자의 정서는 강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자연을 보는 게 그렇게 반갑다네요. 말씀도 웃음도 안해도 좋아한답니다. 그냥 자연 좋다!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누고셔 삼공도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라..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추측할 수 있는 거는 <만승이 이만하라>를 보니, 만승도 이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서 이만하다는 것은 지금 화자가 존재하는 자연에 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만하지 않다는 건, 현재 자연이 만승보다 낫다는 뜻이겠죠.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넘김시다. '님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다는 것도, 님천 한흥이 제일 낫다는 뜻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님천 한흥'이 화자가 존재하는 자연임을 알 수 있겠네요. 지금 화자가 제일 중요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대상이 자연이니깐요.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흐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드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흐시도다 <제5수>

내 '성'이 게으르답니다. '성'은 성격 혹은 성질이겠네요. 성격이 게으른 걸 하늘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놀라고 던져놔나 보네요. 인간 만사.. 밖에 모르겠네요. 아마 게으르니까 인간 만사 따위 필요 없다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자연 좋아!>로 읽으시면 됩니다. 고전시가는 주제가 반 이상이에요. 나머지 반은 선지 해석이구요.

<다만당 다토리 업슨>은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강산 = 자연>을 '지키라 하시도다'는 알 수 있겠네요. <자연>에 계속 있으라는 뜻 같습니다. 화자가 자연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만 체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강산이 도타 혼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흐야도 희울 일이 업세라 <제6수>

강산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분으로 누운 게 아니라 <임군 은혜> 덕분에 누웠다네요. 역군은 이삿다랑 같은 개념이네요.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즐거움과 부끄러움을 나눠야 합니다. 화자와 세계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화자가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산림을 자연일 거고, 명리는 속세일 것입니다.

<산림 = 자연>, <명리 = 속세>, <시정 = 속세>, <은거 = 자연> 이겠네요. 이를 바탕으로 납득해봅시다. 읽으면서 이 정도는 바로 바로 납득이 필요해요.

자연에서 속세를 원하면 당연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속세보다는 자연이 긍정적 대상이니까요. 그런데, 자연에 있으면서 까지 속세를 부러워하면 당연히 크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속세에서 속세에 마음을 두는 것은, 속세에 마음을 두는 것이기에 당연히 부끄러운 것이 맞지만, 속세에 살면서 속세에 마음을 두는 거니까 그나마 작게 부끄럽다는 것이 납득이 갑니다.

자연에 마음을 두는 것은 당연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좋은 거니까요. 따라서 자연에서 자연을 보면 당연히 크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연에 있는데, 자연을 바라니까요. 그런데 속세에서 자연을 보면 몸은 속세에 있는데 자연을 보는 거니까 작게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연에 없으니까요.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즐거움이며, 작은 부끄러움이든 큰 부끄러움이든 나에게서는 그것이 다 부끄러움이다.

작은 즐거움이나 큰 즐거움이나 모두 즐겁다고 합니다. 부끄러움도 마찬가지구요. 즐거움은 즐거움이고,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입니다. 당연하죠. 즐거움은 자연이고 부끄러움은 속세니까요.

그런데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百)에 반이요, 작은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자는 백에 백이며,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서넛쯤 되고,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백에 하나 있거나 아주 없거나 하니,

즐거움과 부끄러움에 대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 반이나 된다는데, 자연에서 속세를 보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자연에서 농사를 지어도 결국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작은 부끄러움은 거의 100%네요. 속세에서 속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큰 즐거움이 정말 적네요. 자연에 살면서 자연을 원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에 살고 싶다는 시조, 자연에서 살아서 좋다는 시조, 자연을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시조가 많은가 봅니다. 작은 즐거움은 아주 없다는데, 속세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실제로 속세에서 속세를 생각하는 게 거의 100%였으니 그럴만도 하네요.

참으로 가장 높은 것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이다.

따라서 가장 높은 사람은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적으니까요. 가장 적은 케이스인 속세에서 자연을 생각하는 것을 가장 높게 치나 봅니다.

그냥 쉽게쉽게 읽어도 되는 걸 이렇게까지 설명한 이유는, 이 사고과정이 너무나도 당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속세의 메커니즘이 머릿속에 잡혀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 해설을 읽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자연은 좋고, 속세는 나쁘다는 것만 알아도, 그걸 바탕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정보 처리가 가능한데, 여러분이 그냥 텍스트만 쓱쓱 읽고 선지 갔다가 돌아와서 찾는 데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문학교 '납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자의 생각, 정서, 등장인물의 생각, 정서, 행동, 사건, 발화 등을 납득할 수 있으면 사실 잡다한 스킬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과한 문학적 해석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자이니, 그렇다면 이 작은 즐거움을 가장 높은 것으로 말한 ㉠ 나의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물질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른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를 마음에 둔다고 합니다. 즉, 속세에서 자연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네요. 작은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말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했으니까 세상 물질 모르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하네요. 하지만 이 글이 '수필'인 만큼, '냐'의 생각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그냥 겸손 떠는 거에 가깝겠죠.

- 이덕무, 「우언(迂言)」 -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경험적 성격과 연결되었다는 뜻은 '구체적'이라는 소립니다. <제1수>의 '산수'는 자기가 뛰집도 짓는 구체적인 공간이므로 납득 가능합니다.

<제6수>에서의 '강산'이 관념적 성격과 연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많은데, 조금만 기출 분석이 되어 있어도 쉽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강산' 자체가 관념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의 맥락상 관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관념적이라는 것은 생각과 관련된 것이고, 추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상징적인 것에 대한 얘기는 관념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강산'은 <임금의 은혜> 때문에 화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1수>에서처럼 뛰집 짓고 자연에서 뛰어 노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말이지요. 따라서 <임금의 은혜>라는 <충>과 연결된 <제6수>의 강산은 충분히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제2수>는 보리밥, 풋니물 등 실제로 구체적인 소재가 드러나네요. 그냥 밥도 아니고 보리밥이고, 그냥 나물도 아니고 풋니물이니까요. <제3수> 역시 '간'을 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본다고 구체적으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작된다고 말하려면,

‘잔’ 혹은 ‘외 = 산’이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여야 하는데, 술잔은 절대로 구체적인 소재일 수가 없고, ‘산’은 맥락상 추상적인 소재일 수는 있지만 <제3수>에서의 맥락으로는 절대로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산’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선지를 꼼꼼하게 보냐의 문제인데,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이므로, 시상이 시작되는 소재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시상이 시작되는 소재는 잔이죠?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잔’은 절대로 추상적인 소재일 수 없기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일단 설의법을 썼는데, 의문이라 보기도 좀 그렇고.. 의문이라 보더라도 <제5수>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제5수>에는 영탄적 표현이 없어요. 이 선지가 시사하는 바는, <부를 줄이 이시랴>, <한 일도 아니 맛더>와 같은 걸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틀린 부분을 선지에 써준다는 말입니다. 실전에서 아무리 안 풀리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풀 수 있습니다.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현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역사에 대한 부정은 누가 봐도 개소리죠? 역사 어찌구는 그냥 핵심에서 벗어납니다. 자연이 최고입니다!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은 <반가움, 좋음>이죠? <제6수>에서는 자연에 대한 좋음이 아니라 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체화되는 것은 커녕 아예 범주가 달라요.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늬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늬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 내면> vs <공감하지 못하는 남들>을 대비하면 당연히 거리가 드러나겠죠? 내면과 외부 세계를 비교하는 것은 (가)의 세 번째 경우였습니다. 거리가 있으면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죠.

② ‘바윗 곳 ㅁㄴ’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바위 끝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 내면> vs <너나쁜 일 = 외부 세계> 대비해서, 세상일과 <거리를 둬 = 소원>.. 적절하네요.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외’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 이걸 그냥 사실관계로만 풀면 됩니다. 시에 분명히 님이 오는 반가움이 산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틀렸네요.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님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라고 분명히 써져 있습니다. 비길 곳이 없다는 것은 삼공이든, 만승이든 님천 한흥보다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 = 친화적>은 당연합니다.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지금 자연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임금 덕택이면, 당연히 나와 임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 = 친화적>은 당연합니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 보자마자 찍고 넘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자연과 속세를 어떻게 섞겠어요. 즐거움은 즐거움이고, 자연은 자연입니다. 그걸 조화시킨다는 얘기는 (다)의 화자의 내면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자연에 사느냐, 속세에 사느냐, 자연에 마음을 두었느냐, 속세에 마음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즐거움과 부끄러움의 정도를 나눴었죠?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자연에서 자연, 자연에서 속세를 비교하면 됩니다. 자연에서 자연을 누리는 사람은 큰 즐거움으로,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었죠? 따라서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큰 부끄러움 = 자연에서 속세> vs <작은 즐거움 = 속세에서 자연> 둘 다 다르네요.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명리를 부끄러움 = 속세를 부끄러움>, <은거를 즐거움 = 자연을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은거가 명리보다 가치가 높죠. 자연이니까요.

41.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런 문제는 ㉠, ㉡을 먼저 보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고,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 ㉡ 모두 자신을 어리석다고 표현하거나, 남들과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남들을 치켜 올려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다고 이것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표현한 걸 수도 있고, 돌려서 표현한 걸 수도 있죠. 어리석은 자신의 생각대로도 살지 않는 남들을 반어적으로 비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 ㉡을 읽고 화자나 ‘나’가 열등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① ㉠은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을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 남의 일을 말하듯이?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했는 걸요.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심청전에서 나온 '갈등'이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② ㉡은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성찰함으로써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

→ 누가 봐도 성찰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죠? 과오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과오가 없는 걸요.

③ ㉢은 ㉠과 달리, 자신의 처지를 자문자답 형식으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일반화하고 있다.

→ ㉠, ㉡ 모두 자문자답 형식이 아닙니다.

④ ㉣은 ㉠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객관화하고 있다.

→ ㉠, ㉡ 모두 남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념을 객관화 하지도 않고,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우리가 찾던 선지입니다. 사실 ①~④ 선지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쪽 훑고 ⑤번을 찍는 것이 맞는 풀이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푸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정 1등급은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지에서의 <자신의 삶 = 자연>일텐데 그걸 부정할 리가 없잖아요?

①~④ 선지는 누가 봐도 오답 선지를 내기 위해 발악했다고 밖에 안 보입니다. 저기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과감하게 쪽 훑고 ⑤번을 찍었어야 실전에서 맞는 태도입니다. 고민을 오래했다면 반성하세요.

42. ㉠을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나)에서 무정물인 대상에 대해 호감을 표현한 것은 자신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은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입니다. <무정물인 대상 = 외부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 호감? <호감 = 정서>이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② (다)에서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자연에 의미를 부여 = 외부 세계에 의미를 부여>이므로,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는 것과 같은 의미네요. 선지가 묻는 것의 방향성을 서로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이에요.

③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한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하여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삶의 방식 = 외부 세계>이고, <상대적 기준에 따라 나누어 평가 = 새로운 의미 부여>이므로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부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도 나왔으므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도 맞다고 볼 수 있구요.

④ (나)에서는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다)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 선인들의 삶의 태도를 자기 내면으로 수용? 선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디에 나왔죠?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소부와 허유 얘기가 이 얘기이긴 한데,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넘깁시다. 그리고 그 과정이 나오지 않았기에 어차피 틀린 선지입니다.) 그냥 자연에서 사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게 시의 핵심이라 잘 모르겠으니 넘기고, (다)를 판단해봅시다. <대다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을 수용>???? 이걸 진짜로 개소리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나' 이었습니다.

⑤ (나)에서 자기 본성을 하늘의 뜻에 연관 지은 것과, (다)에서 자기 삶의 방식을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 견준 것은 자기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에서 자기의 본성이 게으르다면서 연결지었죠? 또한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충분히 자기 삶의 가치를 외부 세계를 통해 새롭게 해석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기>가 작품에 대한 설명이니,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 <보 기>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없음 = 억압>으로 재진술 해주도록 합니다. 같은 말이니깐요.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가)와 (나)를 해석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제 억압에 주목해서 <보기>를 읽어야 합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가)는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언어가 '말'로써 퍼져야 하는데, '활자'로만 존재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상황을 억압적이라고 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본다네요. <억압에 대응하지 못함>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불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나)에서는 언어가 '불박힌 말'이 되면서 억압되고 있네요. 자유롭게 떠다니지 못하니깐 당연히 억압이겠죠. <언어 사용이 되지 않는 개인 = 억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웃음 & 몸짓>은 억압이 아니라 억압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에요. 명시하고, 시를 감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기>를 먼저 읽고 시를 읽는 이유는 <보기>의 내용을 통해 시를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보기>를 대충 썩 읽고, <보기>의 내용을 시나 소설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깊게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기>에서 대부분의 해석을 해준 경우에는 그냥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재진술만 계속 해주면 됩니다. 이번 6평 현대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풀어보시면서 꼭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활자'가 '자유'를 말한다고 해서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기>를 읽었습니다. '활자'가 '자유'를 말하는 상황은,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활자로만!> 자유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유를 얘기하려 하지만 그 수단이 '활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활자가 자유를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영이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입니다. 서술어에 집중하기로 했었죠? '영'이 죽어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 절대 긍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죽어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억압의 상태에 있다고 해석해야 하겠네요.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벗에게 화자가 말을 전달하고 있네요.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활자가 아닌 자유로운 대상인데, 그것을 화자가 <고개 숙이고 듣는 것>으로 보아서 확실히 화자가 억압의 상황에 처해 있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벗'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인가 봅니다.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정서입니다. 강하게 체크해줘야 해요. <황혼, 돌벽 아래 잡초, 페인트> 모두 세부정보입니다. 그냥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설과 같습니다. 세부정보는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고요함 = 억압>이겠죠? 고요함까지도 화자가 싫어하니까요.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의 정의, 우리들의 섬세 모두 행동이 <죽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기>를 읽었으므로, 죽음을 억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욕되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뜻이죠? 정서입니다.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가, 이 교외가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화자이구요. <보기>에서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시해주었으니 우리는 화자의 정서를 '납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의 그대는 '벗'을 뜻하겠죠? 아까 '벗'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기에 반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되어있지 않고 자유로우니까요. 그것을 보고 우습다고 합니다. 역시 정서기에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습다는 것은 그대가, 벗이 우스운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의사소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하는 자조적 표현이겠지요. '나의 성찰인 것입니다. 제 해석 모두 <보기>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실전적으로는 그냥 다 '억압, 억압, 억압, 억압'하면 되지만 <보기>를 읽었다면 시를 이 정도까지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감상력의 상승으로 이어지니까요.

- 김수영, 「사령(死靈)」 -

(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다.
㉡ 훈련받나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선 배들을
㉢ 비웃느라 시시덕거렸다.

한강물이 열고, 눈이 내릴 정도로 추운 날인가 봅니다. 강물에 배들이 <붙들렸습니다.> 배들이 강물에 붙들렸다는 표현은 억압으로 읽어줘야겠죠? <보기>는 이러한 용도입니다. 이제는 <보기>에서 제시된 말과 비슷한 말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다는 것은 강하게 억압되고 있다는 뜻이고, 아이들이 그것을 비웃는 것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기>에 <웃음 = 의사소통 수단>이었으니까요.

㉢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빙그르르.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굴며, 우리는
보았다.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불박한 말들을.

한강물이 흐르지 못한다는 사실도 역시 억압일 것이고, 웃음을 참지 못해 나뒹구는 아이들은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 와중에 보이는 <불박한 말 = 억압>입니다. <보기>에도 그대로 등장한 워딩이죠?

언 강물과 언 하늘이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으며, 우리는
빙그르르. ㉢ 울 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팡팡팡 열고.

언 강물, 언 하늘 모두 억압입니다. 저어가지 못하는 배든, 말이든, 숨죽이고 있는 것이든, 모두 억압입니다. 실제로 실저에서는 이렇게만 읽으시면 돼요. 더 깊은 해석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평소애라도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문학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 김혜순,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

4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적 표현을 열거하여,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낸다.
→ 열거된 것은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들이지, 시간적 표현이 아닙니다. 역시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는 개소리구요. 변화가 없잖아요.

② 대상에 대한 호칭을 전환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경외감을 표현한다.
→ 호칭의 전환은 있습니다. <벗 → 그대>이니까요. 하지만 경외감은 있지 않습니다. 경외감이라 하면 너무 놀랍고 크게 공경해서 공포까지 느끼는 마음입니다. 엄청 극단적인 표현이죠. 절대 아닙니다.

③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한다.
→ 원근을 나타내는 지시어가 없습니다. 멀고 가깝고를 말해주는 것도 없고, 이게 지시어 때문에 애매하다고 쳐도, 대상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내면'을 강조하는 시예요. 외부 세계에 대한 시가 아닙니다.

④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한 것은 맞지만, 설의법입니다. 나의 영이 죽어 있다는 설의법일 뿐이죠. 대상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것이 부정되는 것도 없습니다.

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 1연과 마지막 연,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구절 모두 반복됩니다. 여기서의 시적 상황은 <억압>인데, 이것에 대해 <화자의 부정적 정서 =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심화됩니다. 심화된다고 판단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반복 + 지속 = 심화>라고 볼 수 있는데, 반복되는 구절들의 지속이 일어나므로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를 관심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상 전개에 계기가 형성된다.
→ 분명히 <구경하러 나갔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에 관해 대화하고, 웃음으로써 시상이 전개됩니다. 틀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② ㉡의 '아니야'는 배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배의 내부적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음이 이를 통해 드러난다.
→ 훈련 받고 있다는 추측을 부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내부적 원인>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배속에서 누가 움직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강물이라는 외부적 원인>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틀린 선지입니다. 제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판단해주세요.

③ ㉢의 '시시덕거렸다'는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배가 질서정연하게 정렬된 모습에 대한 '우리'의 냉소가 이를 통해 드러난다.

→ 시시덕거렸다는 것은 억압된 배에 대한 비웃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비웃느라>라고 써 있으니까요. 이것을 '냉소'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냉소는 보통 자조적 웃음으로 쓰이기도 하고 비웃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 깊은 해석을 더하자면, 여기서의 냉소는 억압되어 있는 배들을 보고 웃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을 향한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농무>라는 시를 생각해봅시다.

그 시에서도 농무를 추며 스스로를 킬킬대며 자조적으로 웃는 농사꾼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서의 비웃음도 결국 자신들을 향한 비웃음이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의 배인데, 억압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도 결국 배의 모습을 보고 자조적으로 비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④ ㉔의 '흐르지 못해'는 강이 언 상황이 강물의 흐름을 막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흐르지 못해서 얼어 있고, 그것이 결국 '억압'과 이어지므로 외부의 힘이 강조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여기서도 <외부의 힘>이 선지에 나왔는데, ②번을 틀리신 분들은 급해서 아무 생각없이 선지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발 선지를 문지르지 마시다.

⑤ ㉕의 '꽝꽝'은 강추위가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현실의 상황이 견고하다는 점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꽝꽝 = 청각적 심상 = 감각적 = 감각적으로 표현>, 맞네요. 현실의 상황이 꽝꽝 언 것 만큼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서 자유가 억압되고, 그 사회 또한 경직된다. 이런 맥락에서 (가)와 (나)를 해석할 수 있다.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활자'의 상태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언어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한다.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를 '붙박힌 말'로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보여 준다.

① (가)에서 '나의 영'에 대해 '우스워라'라고 자조한 것은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에서 자신의 참여만으로는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성찰>???? 그냥 <보기>의 사실관계랑 틀린 선지입니다. 화자는 활성화 할 수 없어서 성찰하는 것도 아니고, 자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성찰하는 것이죠. 활성화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② (나)에서 '우리가' '언 강물' 위에서 비웃는 모습이나 '빙그르르' 뒹구는 장면은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함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웃음 & 행동 = 비웃는 모습 & 뒹구는 장면>이죠? 또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 맞습니다. 시를 읽을 때도 이미 그렇게 읽었구요.

③ (가)의 '하늘 아래'는 '고요함'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의 '맞붙은 사이'는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경직된 사회를 엿볼 수 있군.

→ 하늘 아래에서 활자가 간간이 자유를 말해봤자, 결국 억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래 고요함이 존재한다는 것도 억압을 말하는 것이 맞죠. 배와 말이 숨죽이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억압이구요.

④ (가)에서 '자유를 말하'는 것이 '활자'로 한정된 것은 의사소통의 장이 위축된 상황을 나타내고, (나)에서 '말'이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는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군.

→ 너무 당연해서 해설할 게 없습니다. '활자' 자체도 억압이었고, 말이 날아가지 못하고 '붙박힌 말'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억압이 맞습니다.

⑤ (가)에서 주변 세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고, (나)에서 강물이 얼어 '배'를 '저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환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억압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물이 배를 방해하는 것 역시 외부적 상황을 뜻하겠죠. 이렇게 <외부의 힘, 환경> 등의 힌트를 줬는데도 44번의 ②번 선지를 고르지 못하셨다면 시나 소설을 읽는, 선지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틀이 없다는 뜻입니다. 꼭 남은 기간동안 그 기준을 재단하시길 바랍니다.

<9월 모의고사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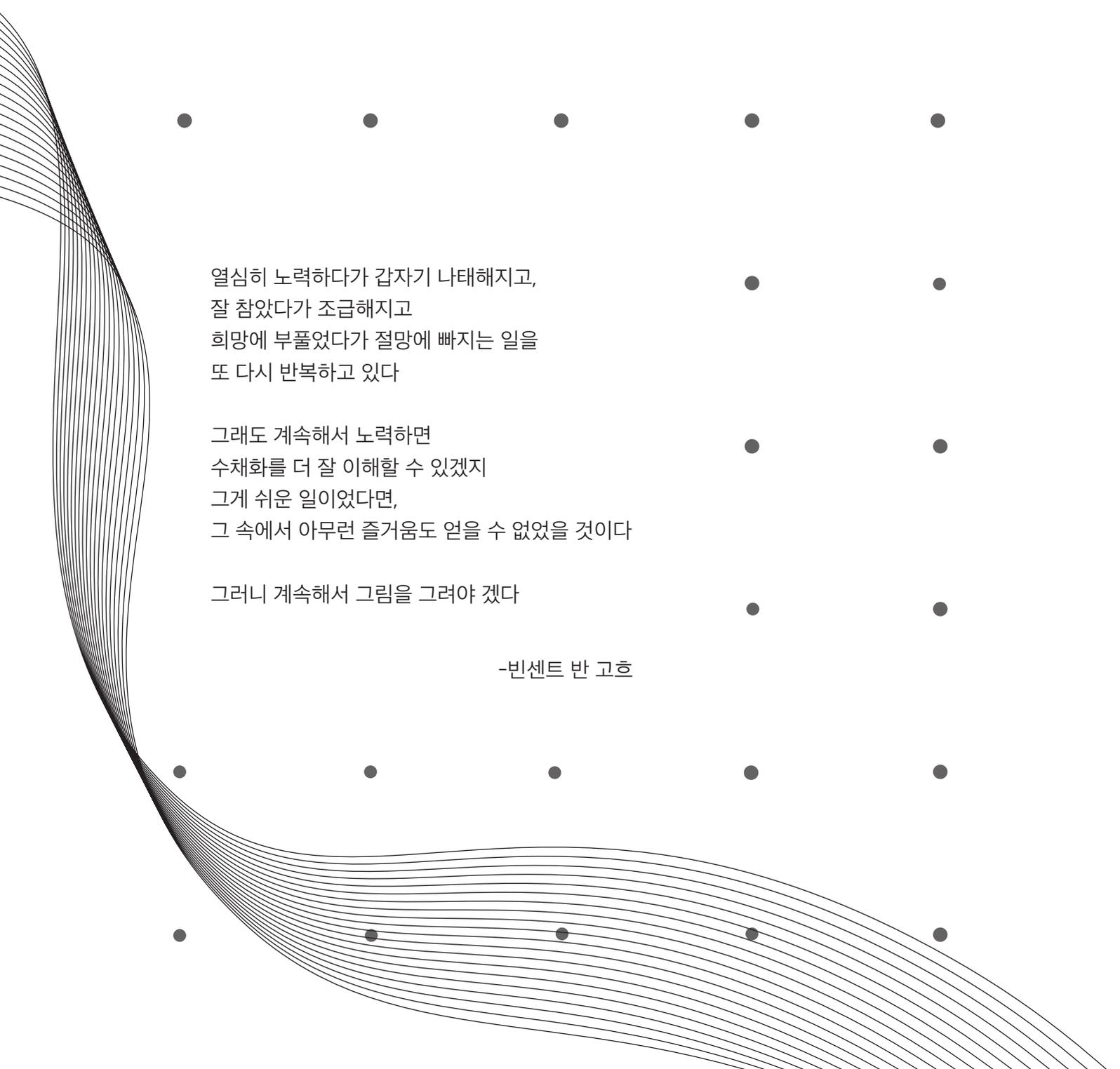
어려운 시험이 맞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잘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드렸던 6월 모의고사 해설지에 쓰인 대로 공부하셨는지 꼭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귀찮은 공부, 생각하는 공부, 항상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결국 그게 정도이고, 여러분들의 실력과 점수를 올려줄 방법은 그것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을 순식간에 1등급으로 만들어 줄 강의도 없고,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텍스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대하느냐, 한 단어 · 문장 · 문단 · 글 · 구절을 깊게 읽고 생각하느냐가 성적이랑 직결됩니다.

실전연습도 결국 근본적인 실력 앞에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제발 남은 기간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았다가 조금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 겠다

-빈센트 반 고흐